

朴대통령 記者會見으로 소통하라

박근혜대통령은 1년 반전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국민대통합을 약속하고 연초 기자회견에서 ‘진정한 소통’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이 국가 최고지도자가 된지 2년차가 되는 지금, 박대통령은 국민대통합과 소통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잇단 인사 실패와 맞물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통 대통령’이란 쓴 소리를 듣고 있다. 심지어 장관들과도 직접 맞대는 소통없이 주로 ‘서면 보고’를 받고 있다는 최근 보도니 사실이라면 보통 우려되는 일이 아니다. 여기서 언뜻 떠오르는 장면이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장관, 보좌진들이 빙 둘러 앉아 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2월 박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실련이 20대분야 672개의 대선공약을 분석한 ‘박근혜 집권 1년 공약 얼마만큼 지켰나’를 보면 국민대통합이 0%로 가장 낮은 이행률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이행률(완전 이행률 28%)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종합적으로 “경제민주화등 시대적,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정책을 실현시켜야 한다. 만약 변화가 없다면 남은 4년간의 국정운영은 더욱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고 고언하고 있다.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것도 없이 국민과의 대화이며 소통이다. 물론 국정이 산적한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민과 번번이 직접 대화를 가질 수는 없다. 여기에 국민과 간접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유용한 길이 기자회견이다. 즉 TV등 현장 중계를 통해 국민과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것이다. 대통령의 보좌진들은 대통령이 때로 시장에 나가 상인들도 만나 물가도 묻고 기업체나 연구기관도 찾아 가 소통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일시적 현장 방문과 짧은 문답은 넓은 의미에서 소통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소통이 아니다.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에 가까울 뿐이다. 소통이란 어디까지나 상대방과 자유롭게 대화를 주고 받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국가의 최고운영자는 국민에게 정책과 국정 방향을 설명하고 때론 이해를 구하며, 국민으로선 궁금한 것을 묻고 또한 요망 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동안 박대통령의 모습은 소통과 거리가 멀며 대통합에도 맞지 않다. 문민정부 이래 지난 대통령들의 취임 첫 해 기자회견 횟수를 보면 김영삼 대통령 3회, 김대중 대통령 8회, 노무현 대통령 11회, 이명박 대통령 4회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전직 대통령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을 홍보하거나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또 IMF같은 경제난에 국민적 합심과 극복 노력을 호소했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은 취임 첫 해 한 번도 기자회견을 갖지 않은 것으로 기록

우리 의 주장

첫 여성 대통령

절제된言行·품위로

좋은 이미지 지녀

인사실패 불구

아직도 好感 많아

정례 또는 수시로

국민과 간접대화를

되어 있다. 신년 초인 지난 1월 6일 “통일은 대박이다”는 명언을 남긴 내외신 회견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으로 기록되고 있다. 대통령 담화 발표나 외국정상과의 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형식의 회견은 몇 번 있었지만 이는 정식 회견이라고 볼 수 없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공식 회견은 대통령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년에 10회 이상이며 사안에 따라 짧은 시간의 기자회견은 수 십회가 된다. 7월 17일 우크라이나에서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8일 오바마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중대함을 밝혔으며 물론 기자들과 질의 응답도 있었다. 국가 안보나 국민복지처럼 사안이 중요한 경우 백악관 대변인의 일일 뉴스 브리핑 시간에 대통령이 예고없이 불쑥 나타나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일도 자주 있다. 박대통령이 높이 평가하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총리는 수시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있다. 최근 메르켈총리는 베를린에서 불법 정보활동을 벌인 우방 미국의 정보책임자 추방조치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 국민들로부터 “메르켈은 오바마의 푸들이 아니다”는 찬사를, 언론으로부터 “바른 조치다”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 대통령은 왜 기자회견을 ‘꺼리는’ 것일까? 언론학자들은 유연한 소통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박근혜대통령은 이 진단과는 다른 것 같다. 성장기 18년간 주로 청와대 생활을 했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야인시절’ 18년도 거의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 온 배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것 아닌가 언론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 평소 원칙과 완벽주의가 자유로운 소통 자리를 자주 갖지 않는 것 아닌가 보여진다. 그러나 박대통령이, 유럽언론이 메르켈총리를 일컫는 ‘승리의 여왕’이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맞지 않는 얘기다.

박대통령은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적 다수가 선택한 최고 지도자이며 또한 세계의 여러 나라가 부러워 한 건국 이래 첫 여성 대통령이다. 박대통령은 또한 절제된 언행과 품위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비록 인사 실패를 보이고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맞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의 대다수는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지켜주려 하고 있다. 우리는 박대통령이 국민적 대통합과 소통을 위해 정례 또는 수시로 자주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는 항상 국민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 [㉠]

문명호 · 대한언론인회 주필

김성환 원로회우의 ‘고바우 만평’

大韓言論 에 연재합니다

고바우 김성환 회우(사진)의 만평(漫評)이 다시 뜻을 올렸다. ‘大韓言論’으로 제호를 달았던 8월 1일에 맞춰 ‘언론은 등대’라는 깃발을 휘날리게 된 것이다.

이번 8월호로 341호를 기록하는 ‘大韓言論’은 1977년 6월 ‘4·7구락부’ 소식지로 시작을 해서 79년 4월 ‘4·7회보’, 81년 4월 ‘4·7언론인회보’였다.

그후 1988년 2월 16일 4·7을 벗어나



‘대한언론인회보’로 변신했고 2005년 5월 1일 ‘대한언론인’으로 제호가 바뀌었다가 2006년 8월 1일 지금의 ‘大韓言論’으로 새 출발했었다.

이제 우리의 ‘大韓言論’은 고바우의 만평이 인생 2막을 열어 다시 뛰듯 6백여 회우의 힘을 모아 유일한 대한민국의 참언론으로 나만의 길을 개척할 것이다. [㉠]

고바우 만평



언론은 등대

차대통령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말라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청문회를 앞두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아마도 분노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사태추이를 보면서 나는 한가닥 위로를 느낀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씨 뒤에 바로 새 총리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이른바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이미 사표를 제출해 놓고 있던,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면서, 여야에 총리후보 인준 절차의 개선을 요구, 만약 개선이 되지 않으면 총리후보 지명을 상당기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답답했던 정국에 일진청풍을 불러 일으킨 사건으로 느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조치였다.

와! 와! 떠들면서 총리인준을 거부하던 여야 정치인과 일부 언론기관들에게 따귀를 한 대 씩 안긴 꼴이며, 박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만만찮은 근성을 내보인 것이었다.

이로써 그동안 아지랑이처럼 떠돌던 이른바 ‘책임총리’론도 다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사실 책임총리론은 헛소리에 불과했다. 대통령제 아래서 총리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기형적인 일이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총리’란 것이 있을 법이나 한 일이나. 국정의 최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책임 총리가 있다면, 누가 과연 진짜 대통령이나. 도대체 어불성설인데도 그동안 이 따위 논의는 아주 정설이거나 한것처럼 일부 논객들 사이에서 나돌았다.

사실 국무총리는 일개 장관에 불과하다. 어디 가서 대통령의 치사를, 대통령 대신, 낭독하고 돌아오라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라고 존재하는 역직이 아니다. ‘대독 총리’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자리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마치 영의정이거나 한것처럼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인척처럼 인식되고 있었다면 이것은 미신이다. 어쩌다가 이런 미신이 우리 정가에서 만연하게 되었는지, 지극히 의문이다. 그러므로 국무총리 인준 청문회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

더욱 놀라운 현상은, 여당의 간부급 인사들 가운데서도 공공연히 문 총리 지명자의 반대 운동을 벌인 자가 있었

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이들은 이른바 ‘당내 민주주의’라는 말을 가지고 그들의 행동의 정당성을 찾으려 할것이다. 그러나 당내 민주주의는 당의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끼리 하는 데서 찾아야 할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깥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 여당의 당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내린 결정에 정면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다면 이것은 해당행위가 된다. 당수와 당원은 결코 1:1이 아니다. 그런 행동을 하려면 마땅히 미리 탈당부터 한 다음에 하여야 할 것이고, 당수가 나중에 이를 인지하였다면 당수는 마땅히 그런 당원을 출



박헌태

·본회 원로회우
·전 KBS 사장

나는 청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할수 없다고 한다면 그의 정치력에는 처음부터 어떤 한계가 생길것이다. 돈은 국민으로부터 소액씩 모금을 할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통치자금’ 명목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산으로 계상해 두는 방법도 있을것이다.

여론에 끌려 다닐것이 아니라, 여론을 선도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것을 할수 있다. 모든 국민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데도 여론을 선도하지 못하고 끌려다닌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태만이다. 국민들이 매일매일 광장에 모여 대통령의 말을 듣

켰는가. 그리고 KBS를 무정부상태로 방치해놓고 총리인준을 관철시키려 했으니 이런 얼빠진 시책을 건의한 책임자는 마땅히 색출하여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도대체 방송이 무엇인지를 알고나 있는 사람이나. 방송법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를 되물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에는 홍보전문가가 있거나 한지 물어보고 싶다.

각설하고, 본론에 들어가야겠다. 우리 한국이 놓인 국내외 정세를 개관컨대, 지금, 박 대통령은 이 모든 사태를 일거에 역전시킬수 있는 천재일우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 우리앞에 놓인 상황은 말로써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다. 오로지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임만 살아있고 기실은, 빈사상태를 헤매고 있는 김정은을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볼것이나. 김정은 일당은 그들의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일본에 납작 엎드려 풍돈을 얻어서라도 연명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이른바 일본국민 납치의 철저한 재조사를 내걸어, 일본에서 얻어내려 하고 있는 내용은 첫째 대일본 인적왕래 규제의 해제, 둘째 일본으로부터의 3백만엔 초과 대북 송금보고 의무와 10만엔 초과액의 현금 반출 신고의 무의 해제, 셋째 인도목적의 북한 선박 일본 입항금지의 해제이다.

지금 김정은 일당은 세계 어디에서도 돈을 얻어 올데가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본에 빌붙어 목숨을 연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북에게 그냥 끌려 다닐것이나. 이들을 종주국 삼아, 말도 안되는 논리로, 파괴행위를 일삼고 있는 국내의 중복세력을 그냥 두고 볼 것인가’가 우리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이다.

이 난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지금 다른 사람 아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미국도, 일본도, 다 우리를 따를것이고, 우리가 결단을 못내리면 세계가 그냥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방관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천재일우의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법언(法諺)에 이르기를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다. 기회도 활용하지 못하면 기회가 아니다.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것이 나의 결론이다. [4]

人事관련 책임자색출 엄벌하고 北韓문제 결단내려 일거역전을

당시켜야 할것이다.

‘당’이라는 말은 ‘당파’의 준 말이다. 주의주장이 같은 사람끼리 모인 것이 당이고, 당파이다. 당수가 중요인사를 함에 있어 모든 당원의 의사를 다 물어서 할 수는 없다. 당원은 무조건 당수의 결정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런 당연한 이치를 모르는 당 간부가 있었다면 이것은 중대 사태이다. 그런 당은 당도 아니다.

또 정가일각에서는 현 대통령이 무척 청렴하다는 사실을 자랑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대통령이 제대로 정치를 할수 있을지 의문으로 생각한다. 정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오로지 옳은 시책만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에게 적당한 감투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막연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들을 모두 이치로만 다스릴 수는 없다. 상당 부분은 돈으로 다스리는 것이 옳다. 그 래야만 그들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모두 지지자로 포용할 수 있다.

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할말이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고만 한다면, 이 무슨 기회의 낭비나. 돈의 낭비도 엄히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기회의 낭비는 더 큰 낭비이다.

원래 좌파들은 선전의 명수들이다. 해방직후에 우리 사회에서 널리 떠돌던 말이 있다. ‘말이 많으면 빨갱이다’라는 말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도, 뒤로는 언제나 파괴행위만 했다. 지금 서울시는 거리에 빈틈없이 그럴듯한 광고를 내 걸어놓고 있다. 마치 서울이 지상천국이나 되는 듯이...

듣건대, 엄청난 숫자의 홍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청와대에 그런 팀이 있다는 말을 나는 듣지 못했다. 비서진을 구성하고 있는 면면들을 훑어봐도, 공세적인 홍보기획보다는, 일이 벌어진 다음에, 소방수 역할을 하기엔 더 적합한 인사들만 짝 차 있는 형국이다. 이래가지고는 언제나 뒷북만 치게 된다.

더군다나 아연실색할 일은 KBS사장을 혼란의 와중에서 해직시킨 처사이다. 사장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해임시

2014 ‘대한언론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회장 김은구)는 언론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주는 2014년도 대한언론상(제24회) 수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심사대상은 일간신문, 통신 방송 및 언론관련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보도, 논평 및 언론학술연구 분야공적으로 합니다. (수상자와 시상식 날짜는 2014년 10월 1일자 ‘대한언론’ 회보

에 발표)

응모 요령

- 분야 : 1) 기획취재 보도 분야
2) 논설 논평, 언론 학술 연구분야
- 대상 : 일간신문 통신 방송 등 언론사 및 언론 관련단체 또는 개인
- 공적기간 :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

- 구비서류 : (개인) *이력서 *사진 2장 (명함판) *세부 공적내용 (A-4용지 2페이지 이내로 작성) 1부 *소속 단체장 추천서(A-4용지 1페이지 이내로 작성) 1부 (단체) 단체장 추천서 1부 *공적 자료 및 관련 사진 첨부
- 접수마감 : 2014년 9월 10일 오후 5시

• 시상일 : 추후 통보

• 접수처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 1405호 대한언론인회 (우100-745) 전화 02)732-4797~8, 02)2001-7621

2014년 8월 1일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청문회 ‘政治복수무대’ 대선 안된다

삼권분립 국가에서 국회청문회는 대통령책임제의 강대한 대통령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위한 방법의 하나다. 국권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삼권분립을 안정시키기 위한 훌륭한 제도지만, 지금은 국회청문이 오히려 국정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것은 원칙 잃은 청와대의 오류, 야권의 정쟁도구화,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처부실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청문기준과 처리방법조차 없이 제멋대로다. 청문의 단골메뉴는 위장전입 교통위반, 최근에는 음주문제까지 제기됐다. 이것들은 작은 잘못일 뿐, 큰 범죄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가 여야의 정쟁과 연결되면서 낭비적인 논쟁만 일삼아, 후보의 인격이 난도질되곤 하여 훌륭한 인재를 망쳐버린 경우가 많다.

대통령이 몇 차례 실패한 뒤 고민 끝에 찾아낸 훌륭한 총리 후보자들이 문제가 안 되는 이유들로 청문회에 가지도 못한 채, 자진사퇴라는 형식으로 낙마 당했다.

KBS의 편파방송에 부화뇌동

안대희 후보의 경우 퇴직 후 변호사 급료가 많았다는 것이 주문제였다. 그는 검사와 대법관으로서 모범을 보여 고위직에 오른 훌륭한 법조인이다. 그 신망이 높아, 법조계 안팎에서 사회적 존경을 받아왔던 귀중한 인물이다.

변호비 수준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안대희의 명예와 신망에 대한 사회적 예우이지, 본인이 주장하여 무리하게 빼앗아 낸 권익은 아니다. 그는 보수의 상당부분을 공익단체에 헌금하여 자선행위를 실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야권에서는 안대희를 ‘범피아’라고 몰아대고, 헌금이 오직 자기영달을 위한 술수인 양 비난했다. 언론매체들은 취직된 그의 아들에 대해 부정취업이 아니냐며 캐묻고 다녀 가족들까지 괴롭혔다. 가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견딜 수 없었던 ‘가장 안대희’는 참다못해 ‘대통령에 누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사퇴한다’면서 물러났다. 야까운 인재를 하나 잃어 안타깝다.

문창극 후보는 논리도 명분도 없이 사퇴 당해 더욱 어처구니없다. 문제된 것은 기독교 장로로서 교회의 요청에 따라 교회 안에서 신도들에게 강연한 내용, 신문 칼럼에서 전직 대통령 DJ를 둘러싸고 돌았던 금전문제에 대한 의혹을 DJ 스스로 해명하여 풀고 가야 한다고 썼다는 문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5·18때 미국의 방관행위에 대해 너무 과민하게 비판적이었다는 표현 등이다.

첫째 문제인 교회강연은 구약성서 39개 책 중 제18서인 <욥기>(Book of Job)의 내용을 인용하여 한민족의 복 받은 희망을 설명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장과 보도본부장이 물러난 KBS는 문창극 강연의 전체 흐름을 외면하고, 사례 몇 개를 골라 들어 문창극을 ‘민족반역자’ ‘친일파’로 규탄했다. 다른 방송 등 언론매체들과 야당 정치인들이 줄을 서서, KBS에 부화뇌동(附和雷同)했다. KBS보도내용이 실상에서 벗어난 ‘잘 못된 방송’이었음이 밝혀져 고발론

까지 일었다.

청문회가 활극장인가

둘째인 DJ 문제도 그때 이미 사회적인 화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신문 고정칼럼을 맡고 있던 언론인이 글로 쓰는 것은 당연한 임무였다. 이것을 두고 민주계 정치인 박지원은 이를 비난하면서, 문창극을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호언하고 나섰다. 야당에선 박지원을 청문회 위원장으로 앉힐 방침이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필자에겐 그들이 국회청문회를 마치 정치복수를 위한 활극무대(活劇舞臺) 정도로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됐다.



구종서

·본회 논설위원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국문명사연구소 대표

청와대·여당 이성 잃고 우왕좌왕

대통령이 선정한 국무위원 후보라면, 여당인 새누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청문회를 열고 야당을 설득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을 지키고 국

는가.

우리 사회, 특히 지식인사회에선 문창극을 반민족 반국가적인 인물로 보진 않는다. 오히려 헌법을 존중하여 지키는 당당한 언론인으로 믿고 있다. 그런 이유들로 문창극은 언론계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소신 있는 좋은 글을 많이 써서 저명한 언론상도 여럿 받은 모범 저널리스트다.

안대희·문창극 ‘아까운 인재’ 잃어버린 셈 국가통치부서 확고한 목표로 밀고 나가야

셋째인 학위논문 문제는 북한도발이라는 불안사태와 관련돼 있다. 김일성은 4월혁명 혼란기에 남침하지 못한 것을 몹시 후회하고 있었다. 그 김일성이 5·18때는 평양에 건재하면서 남한사태를 주시하고 있었다. 김일성의 남침도 발로 발생한 6·25참사를 체험한 우리 국민들은 광주사태 당시 북한의 남침을 걱정하면서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신앙 언론 학술은 ‘양심의 자유’에 속한 기본적인 자유권이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다. 문창극 시비대상인 교회강연, 신문칼럼, 학술논문은 오래 전의 일들이고, 그 내용도 다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문제되지 않고 수년을 지내왔다. 문창극의 말과 글이 진실로 민족반역 친일행위라면, 그동안 가만히들 놓아두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문제 삼아 나라를 시끄럽게 하

정을 돕는 여당의 과제다.

마침 보궐선거와 당대표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인가. ‘친박말이’라고 불리면서 당권을 노려 새누리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청원은 ‘박근혜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오히려 대통령이 선정한 문창극 후보에 대해 사퇴하라고 나섰다.

대통령은 외유 중이었지만, 귀국하기 전에 서명해서 국회에 청문요청서를 보내기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국내의 언론들과 야당이 사퇴하라고 성화를 부리자, 대통령은 서명을 미루고 귀국해서 결정하겠다는 자세였다.

필자는 대통령이 돌아와서 상황을 알아보고, 사퇴할 이유가 있는가, 소수자 의사에 의한 가변적인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문창극을 직접 만나 청문준비가 되고 있는가 등을 알아본 뒤, 국회에 청문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헛된 희망이었다.

청문회 준비에 노력하면서 사퇴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온 문창극은 대통령이 귀국한 뒤 바로 사퇴했다. 역시 ‘대통령을 위해서’라는 이유였다. 미적지근했던 대통령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당당한 결단력도 없었고, 원칙과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언론과 야당의 선동공세에 대한 집권층의 무전패퇴(無戰敗退)다.

총리후보 문창극 과감히 밀었어야

대통령 자신이 여러 가지로 알아본 뒤 선정했으면 당당히 국회에 청문을 요청하고, 새누리당을 추슬러 과감히 밀고 나가, 국회결정에 맡겼어야 한다. 문창극에 연약했던 박대통령이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인 정성근에 대해서는 의외로 과감하게 나서서 강행 추진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야당대표와의 회동에서 철회요청을 받고도 그의 청문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청문회기간 중에 폭탄주 식사 등의 이유로 야당의 비난이 고조된 가운데, 정성근은 박대통령이 재청문을 요청한 다음날 스스로 사퇴했다.

이 무슨 해괴망측(駭怪罔測)한 일인가. 청와대로선 얼마나 낭패(狼狽)인가. 게다가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정하지도 않은 채, 현직 장관 두 명을 면직하여 행정공백을 가져왔다. 국가통치사령부가 왜 이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 헛돌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 때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지 몰라 속수무책(束手無策)이었던 행정부처 단위의 실책이 국정 최고 본영에서 그대로 반복됐다.

대통령·국회·야당·언론까지 고장나

문창극 정성근의 엇바뀐 사퇴를 보고,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 실망했다. 그들의 ‘갈지자행보’(之字行步)가 결국 대통령지지층인 보수층의 지지마저 잃어, 박근혜 지지율은 떨어지고, 서청원은 낙선되지 않았는가. ‘친박말이’가 대통령을 지켜내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주었고, 자신도 경선에서 패배하여 탈락됐다.

헌법상 국가통치기구로 규정된 대통령과 국회,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가의 제4부라는 언론들까지 모두가 고장 나서, 이성을 잃고 있다. 과연 그들이 국가엘리트로서 나라경영을 제대로 해나갈지 믿어지지 않는다.

국가경영의 총책인 국가지도부가 확고한 목표 없이 어영부영하게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통일대박’을 이뤄내고, 한국주도하의 ‘유라시아 경제공영권’을 만들어 가겠다는 희망찬 박근혜구상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한국민은 정치관심이 매우 높다. 더구나 그 마음이 극히 애국적이다. 지금 대통령과 여야 모두에 대한 지지율은 낮은 수준이다. 우리 국민들이 여야의 저질정치에 실망하여, 탈정치(脫政治)로 돌아 ‘정치무관심’으로까지 물러서서 애국심마저 약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다. [필자주]

회우들 寸鐵殺人の견 제재 ‘100자 발언대’ 신설

우리 회우 모두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大韓言論’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새로운 코너를 신설합니다. 이름하여 ‘100자 발언대’. 사람의 마음을 찔러 감동시키고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짧은 경구(警句)성 소리(寸鐵殺人)를 내보자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와 언론 그리고 각계를 향한 제언과 경각을 줄 수 있는 내용, 다시 말

해 한마디로 잘라 말해도 상대방이 능히 판단할 수 있도록 (一言可破)하자는 것입니다.

보내준 100자 발언은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한 코너로 모아질 것입니다. 회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필자주]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安全’ 어릴때부터 몸에 배도록 하라

세월호 대참사 수습과 가야 할 길

세상은 여성이 전투 사령관이 되는 시대에 이르렀다. 안전의식은 이제 살아 남는 전투태세 중의 하나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되었다.

스위스라는 나라는 전 국민이, 언제라도 즉시 방공호에 대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몇 달분의 비상식량이 가정마다 항시 비축되어 있고, 누구도 전시 훈련에서 제외되지 않는 나라임을 우리는 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영세 중립국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만 우리는 알고 말한다. 그러나 아마도 그 나라는 그것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근본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세계 기구가 그곳에 몰려 있고, 첨단 기술력이 가장 발달한 나라의 하나이며 무기생산에 대한 정보가 그곳에 집중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공업기술의 가장 선진한 나라가 되어 지구상에서 삶의 질이 가장 앞선 나라가 된 것이다. 전쟁과 위협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면 생존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전세대·전시대 걸쳐 교육해야

이미 잘 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수단이 안전보장의 나라 만들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 집중적으로 해보고 끝나는 것이 안전훈련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삶의 원천을 위한 절실한 의식과 안전 사회를 만들기 노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좋은 나라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 세대에 걸쳐 이뤄져야 하고 전 시대를 통해 지켜져야 한다.

어린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환경에서 성장시키고 그 능력의 정착을 위해 기본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처럼 학교 따로 가정 따로인 것은 많이 잘못된 나라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안전의식에는 불감증의 굳은 살이 박혀 버렸고 자기와 관계없는 귀찮은 남의 일쯤으로 무관심의 두꺼운 껍질이 싸여져 버렸다. 그것이 우리가 저질러 온 커다란 잘못이고 몸서리쳐야 할 어리석음이다.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는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문턱을 결코 넘지 못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이 늦었고 대책없이 부실해서 멀고 험한 과제로 놓여 있다. 이제부터라도 온 국민이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안전의식의 구체적인 정착이다. 그러기 위한 철저한 육화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너무 늦은 것이, 아주 늦은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

잘 살기위해 거쳐야 할 과정으로

그러기 위해 가장 성급한 일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훈련이 실천되는 환경에서 성장되도록 하는 일이어야 한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러줘야 한다. 그것은 그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제부터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안전의식

특별기고



宋貞淑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고문
·전 관훈클럽 총무
·전 보건사회부 장관

안전훈련 履修

진학-취업에

스펙으로 작용케

감시능력 뛰어난

여성인력 활용

어린이교육 담당을

과 훈련은 필연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너무 많은 악몽을 겪고서야 이제는 살아남는 길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겨우 깨닫게 되었다. 아마도 이제부터 다가오는 시대는 안전교육이나 훈련의 이수(履修)가 진학이나 취업에서 한 부분의 커다란 성적이나 스펙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통찰력이 있는 어른이라면 성장하는 자녀에게 이런 지혜를 일깨워줘야 한다. 취업시험의 면접에 당면한 수험생이 자기소개를 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나는 안전교육을 받았다. 어떤 경우에 닥쳐도 안전에 대한 방어태세를 즉각 갖추는 훈련을 익혔고 부모님의 지도로, 가족 단위의 정기적 안전 체험을 길렀으며, 집단 안에서 안전 분야에서만은 나는 즉시 리더로 투입될 만큼 능력을 쌓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런 피력을 할 수 있는 응시원이 있으면 면접관은 틀림없이 평가 점수를 더 첨가할 것이다. 앞으로의 안전교육은 첨단과학의 발달과 병행되어야 한다. 위험요인도 날로 변화하고 확대된다. 또한 보다 정밀하고 심화되어 갈 것이다. 그러므로 일찍 교육이 시작되지 않으면 안된다.

첨단과학 생활화시대 맞춰야

특히 딸들에게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안전교육은 완력이나 체력이 주도하던 지난 날의 방식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시대가 이미 되었다. 그리고 첨단과학의 생활화가 이뤄지면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고 적응력이 낫다는 인식이 의미 없어졌다. 특히 여성들은 섬세하게 감시하는 능력이 비교 우세할 수 있으므로 안전교육과 실천의 주도과 지도를 선제적으로 맡을 수 있게 되었다. 컴퓨터가 전쟁을 수행하는 시대이므로 여성 전투사령관이 지휘하는 전략이 승전을 이끄는 일이 예사롭게 되었다.

한국어머니들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만큼 유난하다. 그 유난함을 에너지로 삼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따갑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거듭하면 충분히 효과를 거두고 많이 늦게 출발하는 우리의 약점을 단축해서 성취시킬 수도 있다.

아이들에게 잔소리는 싫증나기 쉬운 일이므로 자율에 맡기고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해야 한다는 교육이론가들이 있다. 그것은 일견 훌륭한 말이지만 반드시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엄격하게 훈련하고 거듭해서 다져 주고 끊임없이 되짚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과 훈련의 근본이다.

거듭해서, 꾸준히 입력해 놓으면 유사시에는 그 지식과 지혜가 적절하게 튀어나온다. 그것이 훈련과 수련의 요체이다. 성장기의 인성과 품격에 충분히 스며들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가 노력을 멈추면 안되는 것, 그것이 국가 사회의 안전망 구축의 바탕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4]



충무아트홀에서 열린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결의 대회.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전국 결의대회 열려

세월호 참사 사건을 교훈 삼아 ‘국민 대각성 운동을 펼치자’는 대한언론인회의 국민적 운동 취지와 병행해 종교계 교육계 법조계 여성계 문화계 언론계등 사회 각계 원로들이 중심이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이하 새한국국민운동) 전국결의대회가 7월

25일 각계 대표들과 1천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반 동안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 국민운동의 발기인 중 한 원로인 서경석목사는 “세월

5면으로 이어집니다.

국가개조 積弊척결에 焦点맞추라

세월호 대참사 수습과 가야 할 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석달이 넘었다. 그동안 우리는 패닉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려왔다. 우리나라가 어떤 수준의 나라인가를 똑똑히 보게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문제가 있기는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진국 문턱쯤에 이르렀거니 여겨온것이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그랬던것이 사건이 나고보니 우리는 선진국은 고사하고 중진국에도 이르지 못한것이 아닌가 하는 냉혹한 현실을 목도하고 말았다. 추하게 일그러진 자기모습을 확연히 보았을때의 충격과 좌절, 이것이 바로 우리를 패닉상태에 몰아넣게한 원인이었다.

심기일전 새출발 할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때가되었다. 그리고 심기일전, 새로운 출발을 하지않으면 안된다. 언제까지 탄식만 해서는 아무것도 되는일이 없겠기 때문이다. 이번의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부실 투성이의 우리 참모습을 보았다는것이다. 그리고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면서라도 뭇인가 큰 수습을 해 고치지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는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점이라 할수있다.

지난 7월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내놓은 ‘국가 개혁안’은 바로 이런 인식에서 나온 결과물이였다. 정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발표문을 통해 “국가개조는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 실천에 동참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 전제하면서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국가 대개조 범국민위원회(가칭)’를 만들겠다고했다. 그리고 위원회 산하에 전문 분과를 두어 공직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의식개혁등 국가개조를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실행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우리는 공황상태에 빠진 민심을 수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정부가 이렇게라도 대책을 내놓은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오래된 적폐로인한 총체적 부실로 나타난 오늘의 문제를 새로운 위원회를 만든다고해서 쉽게 해결될수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때마다 술한 위원회가 만들어졌었다. 국민화합, 지역차별철폐등을 비롯해 복잡한 갈등요인들을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든 기구들이었다. 그러나 결실은 이렇다 할만한것이 없었다. 그래서 책임 회피용이니 예산낭비만하는 옥상옥이니 하는 비난을 많이 받아왔다.

이번에 내놓은 정부안에대해서도 벌써 말이 많다. “위원회의 명칭을 왜 국가개조라 하느냐” “일본 군국주의가 썩먹은 구호가 아니냐”하는 시비에서부터 “위원회를 왜 대통령 직속으로 하지 국무총리 산하로 하느냐”는 따위가 그것인데 이런것은 크게 문제 삼을것이 못된다. 우리가 크게 유의해야할 점이있다면 앞으로 생길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했던 지난날의 전철을 밟지않으려면 어떤것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

불가피했던 시대적 산물 많아

우리가 앞으로 개혁해야할 문제들은 모두 새로 생긴것이 아니라 그동안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누적된 폐단들이



최서영

·본회 자문위 의장
·전 코리아헤럴드사장

성장파른 속도전
절차무시 적당주의
法治역행 척결

여론 올바로 이끌
언론의 역할
무엇보다 중요

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가 당면했던 불가피한 점도 있었던 시대적 산물들이었다.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토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루어 낸 빛나는 업적으로 흔히 산업화와 민주화를 꼽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는 불안한 위기 상황에서도 꾸준히 경제성장을 지속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두나라뿐이라고했다. 맞는 말이고 듣기좋은 말이다.

우리는 서구 선진국들이 몇백년에 걸쳐 차근차근 이룩해 온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불과 수십년만에 후다닥 이루어냈다. 모두 기적이라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있었다. 가난을 벗어나기위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우리는 다른것을 돌러볼 겨를 없이 앞만 보고 외길을 달렸다. 그것도 뒤쳐지면 죽는다는 절박감 때문에 빨리, 빨리 내닫는 속도전으로 일관했다. 이 속도전과 성과주의의 불가피한 폐단으로 생겨난것이 바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편법과 적당주의였다.

지금 와 생각하면 우리가 보릿고개같은 절대빈곤을 벗어났을때부터 속도를 좀 늦추면서 절차를 무시하는 적당주의를 탈고했다라면, 그리고 내실을 다지는 실속행기기에 힘을 쏟았다라면 세월호 참사같은 어처구니없는 비극은 피할수있지 않았을까 하는 뉘우침이 생긴다.

또하나 우리나라에는 지금 자기에게 불리한 법은 지키지 않아도되는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폐풍이 만연되어있다. 이것 또한 민주화 과정에서 생긴 엄청난 폐단이다. “악법도 법인만큼 지켜야한다”고 독배를 마시고 죽은 소크라테스의 교훈을 우리는 찾아보기 어렵게되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법을 지키는 토대위에서만 존재할수있는 시스템이다. 쓰레기통에서는 절대로 장미꽃이 필수없다는 말은 누구나 명심해야할 귀중한 잠언(箴言)이다.

각 분야 대표 전문가 동원을

국가개조가 되었건 국가혁신이 되었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 못한다. 배고팠던 시절 가난에서 벗어나는것이 절대적 과제였던것처럼 이제 우리는 새로 생길 개조(개혁)위원회가 앞서 지적인 과거부터 내려온 적폐를 과감히 고쳐나가는것을 지상목표로하는 有名有實한 기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기위해서는 이번 위원회만은 일체의 정파적 이해와 관계없이 각분야를 대표할수있는 능력있는 전문가들로 짜여져야하고 모두 힘을 모아야한다. 그리고 끝으로 바라는것은 이 과업이 성공하려면 언론이 국민여론을 올바로 이끌어 주어야한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진실을 추구하고 규명하는 치열한 저널리즘은 온데간데없고 반짝 눈길을 끄는 흥미위주의 가십(Gossip)이나 항설에 호들갑 떠는 형국이어서 큰 걱정이다. 언론에 생애를 바쳤던 퇴역 언론인들 모임의 대한언론인회 회보에 이런 주장을 펴는것은 누워 침뱉기라 할수있으나 우리 언론계의 후진적 행태를 볼때 이런 탄식과 충고를 하지않을수없다.

우리 속담에 “비 온뒤 땅 굳는다”는 말이있다. 우리 모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누적되어온 병폐를 일소하고 새로 태어나는 과감한 국가 대 혁신사업에 힘을 모아야겠다. [국문]

4면에서 이어집니다.

호 같은 재난을 겪고도 사회를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다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임대표인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0여 년 간 우리 사

회는 좌우로 나뉘어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했습니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좌우를 가리지 않고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고 호소했다.

이날 새한국국민운동은 앞으로 사회의 개조와 통합을 위해 정치개혁과 부정부패 추방, 교육개혁, 경제국민운동,

관피아와 법조계개혁, 좌우과간 '역사전쟁' 종식과 현대사 공동집필, 국민의회 개혁 등 6개결의안을 채택, 사회 지도층으로부터 일반대중이 중심이 되는 전국적 대중운동으로 펼쳐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 '새한국국민운동'엔 본회 회원중 김진현 전 과거처장관 (전 문화일보회

장)이 상임대표로, 김경래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제재형 고문, 이도형 한국노동 단 발행인, 현소환 전 연합뉴스-YTN사장, 신동식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정 감사, 문명호 주필, 박범진 전 국회의원, 도준호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국문]

한국언론 ‘건국의 아버지’를 찾아라

光復
69돌



인보길

·본회 부회장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상무
·현 뉴데일리대표·이승만포럼 대표

建國節도

建國者도 없는 나라

‘이승만 지우기’

이젠 그만해야

국가정신 개조

애국심 회복

건국대통령

반공정신 살려야

대한민국은 8월이 부끄럽다. 광복절이 부끄럽다. 북한에 창피하고 일본에 낮 뜨겁다.

대한민국은 길에서 주워 온 ‘고아’인가? 생일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 5천년 민족사에 최초의 자유민주국가이자 최대강국인 대한민국이 건국절도 없고 건국자도 없는 나라로 지낸지 몇 십년, 이승만이 66년전 세계에 건국을 선포한 1948년 8월15일이 생일일인데 이날이 건국절이요,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다. 이 생일을 생일이 아니라고 지우고,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고 우기는 세력은 북한 김일성 왕조만이 아니다.

1960년 이승만 정부에 이어 집권한 민주당 윤보선 대통령은 김도연 총리지명 담화에서 “건국초기 총리”라고 말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임시정부 법통을 이은 최초의 정부”라고 선언하였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역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유일한 정부”이며 이로써 “임시정부의 국시가 실현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예 “제2 건국”을 선포하고 ‘제2 건국위원회’까지 출범시켰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몇 번 건국하였나? 자칭 ‘건국자’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또 있을까.

▶이승만 대통령은 왜 하필 정부수립=건국 선포를 해방과 같은 날인 8월15일에 했단가? 독립의 감격을 해방의 기쁨과 뭉쳐 경축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에게 이 날은 특별하다. 40여년간 싸운 일본 제국주의가 항복한 날이기 때문이다. 20세부터 왕정 민주화 투쟁으로 투옥되어 감옥에서 자유민주국가의 설계도 <독립정신>이란 책을 썼던 이승만. 그의 평생 전락 ‘외교적 독립운동’이 이루어낸 건국의 감격, <독립정신>에 그린 그대로 법제화한 자유민권 헌법, 미국-소련과 싸우고 공산당과 싸워 거의 혼자 힘으로 쟁취해낸 자유-반공의 승리, 2차대전후 소련 점령권 가운데 유일하게 공산 식민지화를 막아낸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기적’ 그것이었다. 스탈린이 일찌감치 북한에 위장 ‘민주기지’ (한반도 공산화 기지)를 구축하자, 이를 확인한 이승만은 남한에 ‘단독 정부’라도 세워 ‘자유기지’ (북한해방 자유통일 기지)를 완성했던 것이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북진통일’을 외친다.

▶건국 다음해 1949년 8월15일 이승만은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인 오늘을 제4회 해방 기념일과 같이 경축하자”고 연설하였다. 1950년 전란중 대구에서 ‘제2회 광복절을 맞이하여’라는 기념사, 1951년 부산에서도 ‘제3회 광복절을 맞이하여’ 기념사를 읽었다. 6·25전해 1949년 ‘국경일 입법’에 독립 기념일 명칭을 광복절로 정한 바에 따른 것이다. 광복(光復)이란 단순히 피동적인 해방이 아니라 국권과 주권을 다시 찾은 광명, 독립의 회복을 의미했다. 1958년 건국10주년을 기리는 경축행사는 보신각 타종, 시민위안의 밤, 꽃전차등 다양하고 화려했다. 건국의 날(1948.8.15.) 출생한 ‘건국둥이’ 소년 소녀들을 선발하여 꽃수레 시가행진도 벌이고, 언론은 일제히 ‘건국10주년 기념 사설’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은 ‘독립기념일=광복절’이 슬며시 독립-건국의 의미는 지워지고 ‘해방 기념식’만으로 변질 된 것은 1960년 민주당 정권부터다. 이후 80년대 소위 NL-PD 극좌운동권이 급성장하면서 북한 통일전선의 총공세와 어울려 우리 건국역사는 ‘김일성역사’에 밀리기 시작한다.

▶해방-건국기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세력들은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다.

①소련: 북한점령 즉시 공산화 완성(1946). 남북한 공산당에게 ‘남한건국 저지’ 테러-폭동-반란 지령. 미국과 협상(공동위) 실패하자 무력남침 강행.

②미국: 소련에 포섭된 국무성이 남북 좌우합작 강요. 이승만의 반소정부를 반대. 이승만 제거 3차례 시도. 소련의 그리스침략에 반소 전환.

③김구세력: 김일성과 합작 추진. 남한 총선 반대. 대한민국 건국 반대, “이 정부수립 인정 못한다” 선언. 유엔의 국가

승인 반대 운동.

④기타 세력: 좌우합작 찬성, 미군정 연장 추진. 서재필 대통령 옹립 등등.

▶1995년 해방50주년, 김영삼 정부가 국립박물관 건물(구 총독부)을 철거한 그 날 김대중 야당대표는 “절세의 애국자 김구선생”을 찬양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친일파가 지배해 온 역사”에 대한 ‘올바른 청산’을 요구하는 글을 동아일보(95.8.15)에 발표했다. 소련 점령지역에서 반공세력을 제거할 때 써먹던 ‘친나치’ ‘친일파’ 무기가 다시 등장한 것. 대통령 김대중은 “제2 건국”을 선언하고, 대선 공약인 ‘백범기념관’을 대규모로 건립한다. 김구가 1948년 남북합작을 위해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난이후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북한 김정일과 회담, 연방제 합의, 햇볕정책을 펼친다.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민주노동당(민노당)이 창당된다. ‘제주4·3폭동’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규모 국가사업이 진행되었다.

▶2003년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여러번 하였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 될 나라” “우리의 근-현대사는 정의는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 하였다면서 “광복이 중요하지 건국은 그에 따라 온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해 광복절에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등 무려 16개의 특별위원회를 설치, 피해자 보상에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법을 고쳐 ‘사회주의자’들에게도 훈장과 공로금이 지급되었다. 박원순(현 서울시장)이 주도했던 ‘제주4·3평화공원’을 비롯, 곳곳에 새로 만든 근-현대사 박물관에는 건국사를 왜곡·희화화한 전시물들이 “대한민국 수립은 ‘이승만의 반공 파시즘’에 불과한 사건”으로 묘사, 반공이 공격목표임을 드러낸다..

▶80년대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전교조등이 잇따라 설립된 후 “현대사 다시 쓰기” 조직들은 대한민국 건국사를 사실상 부정하면서 민족사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음을 조명하는 역사관을 확산시킨다.

그것은 김영삼 정부때 국민교과과정에 편입되기 시작하여

김대중 정부에서 김인정 교과서로 확정, 우리 미래세대의 역사교육을 아직도 독점하고 있다. 특히 언론, 영화, 예술등 문화진지를 장악한 세력들이 ‘학문과 예술과 언론의 자유’로 포장하여 오프라인-온라인에 쏟아내는 역사조작, 선전선동, 친북-종북의 무서운 마약들! ‘좌파 포퓰리즘 프레임’에 포로가 된 대한민국 정부는 그들에게 예산을 퍼주고 미래세대를 반국가국민으로 만들면서도 태평이다. 국가반역행위를 돕고 협력하면서 무감각한 국가, 국가가 아니다. 고종황제가 떠오른다.

▶대한민국은 구한말 대한제국과는 물론 다르다. 정말 다른가? 한미동맹과 미군이 지켜주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묵숨 걸고 관철한 78세 이승만은 말했다. “이 조약으로 우리 자자손손 번영을 누리리라. 일본의 침략에서 보호해 주리라. 잊지 말 것은 미국을 믿지 마라. 미국이 언젠가 일본을 위해 또 다시 한국을 버릴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국제경세가 경고다. 1905년 을사늑약 직전,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말했다. “적에게 주먹질 한번 못하는 코리아는 하느님도 도울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일본에게 한국을 던져 주었고(태프트-가쓰라 밀약), 미국은 이승만의 예언대로 엄청난 피해를 흘려야 했다. 그러고서도 다시 일본인가? 우리 언론에게 호소한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과 국기를 다시 찾자. 중국-일본-미국-러시아의 新냉전시대, 그들처럼 ‘건국절’과 ‘건국의 아버지’를 다시 찾아서 ‘제2의 독립운동’ 차원의 국가정신 개조-애국심 회복 캠페인에 나서자. 北核과 촛불이 무서운 촛불 같은 국가 운명, 내부의 적을 잠재우고 강대국 외세를 활용할 줄 알았던 이승만의 전략전술-반공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다. 역사는 역사를 모르는 자들에게 벌을 내린다. 지금 이런 호소에 귀 기울일 언론사가 몇 개나 남아있을지... 참 큰일 났다. ☞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국장 모습.

金日成에 넘어간 者と 이용한 사람

光復
69돌

특별기고



조갑제

·조갑제 닷컴 대표
·전 월간조선 사장

민족반역자 흡모세력이
정치인등으로 설치는
한국은 ‘從北病’ 말기

南侵범죄행위 결과로
한국발전 촉발하고
세계共產主義
붕괴요인 되기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15일 0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뉴스1이란 통신사의 기사이다. 김일성 생일이 '태양절'이라고? 김일성이 민족의 태양인가? 죽은 학살자에게 무슨 '주석'이란 직함을 붙이나? 거짓말 집단이 불러 달라는 대로 불러주면 사기의 共犯이 된다. 지난 3월26일은 건국 대통령 李承晩 탄신 139주년인 되는 날이었다. 한국 언론은 이날의 의미를 완전히 묵살하였다. 그런 언론이 김일성 생일이나 김정일이 죽은 날은 크게 보도한다. 국민의 방송을 자처하는 KBS 라디오는 '故김정일 국방위원장 2주기 추모'라는 표현을 한 적도 있다. '故' '국방위원장' '추모'라는 3중 존칭을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 폭침 지령범에게 붙이는 언론은 이미 영혼이 떠난 조직이다.

올해 전국 고등학교의 90%가 채택한 5種의 좌편향 국사 교과서 중 4種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北의 선전자료를 근거로 가르친다. 불량상품의 허위 광고를 국가가 국민세금을 써 가면서 선전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들 反대한민국적-계급 투쟁史觀 교과서는 이승만보다 김일성에 호의적이다. 원수를 恩人보다 더 동정한다.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사람은 동정받아야 할 사람에게 잔인하다〉(탈무드)고 한다.

1930년대 서구의 좌파 지식인들도 소련 독재자 스탈린이 벌인 '숙청'이란 이름의 무자비한 인간 屠殺을 규탄하기는커녕 옹호하였다. 좌파는 아니지만 좌파에 동정적이었던 프랑스의 앙드레 말로조차도 "종교재판이 기독교의 본질적 권위를 훼손하지 않듯이 모스크바의 재판도 공산주의의 본질적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영국의 저술가 폴 존슨은 '모던 타임스'란 20세기 通史에서 이렇게 요약했다.

〈스탈린주의를 변호하려 한 西歐 지식인들의 시도는 그들을 '자기 부패'(self-corruption)의 과정에 빠뜨렸다. 이는 그들의 글을 통하여 그들의 국가로 轉移되었는데, 전체주의 체제의 고유한 도덕적 타락이 옮겨갔다. 대표적인 것은 善과 惡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풍조였다.〉

미국의 1930년대에도 한국의 1980년대처럼 스탈린주의자들이 좌파 운동의 선봉에 섰다.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좌파가 미국 민주당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정부에서 일했던 두 엘리트 관료 앨저 히스와 텍스터 화이트는 소련 간첩이었다. 前者는 유엔, 後者は IMF 창립의 실무 책임자였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독재를 비호하면서 李承晩과 朴正熙와 미국을 공격하여 먹고 사는 중북(진북)좌파도 스탈린 비호 서구 지식인에 못지않은 악영향을 공동체에 끼치고 있다. 天國에서 살면서 악마를 동경하는 현상은 그 자체가 국가와 국민의 정신적 부패이다. 배웠다는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한 타락은 없을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대학살은 절대惡, 즉 反인류범죄인데, 그 범죄자들을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흡모하는 자들이 숨어 지내지 않고 정치인으로, 언론인으로, 학자로, 성직자로 설치고 다니고, 이들을 옹정할 힘이 없는 나라에선 모든 도덕률이 다 무너진다. 수백 만 명의 사람 목숨을 앗아간 자를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 어떤 악독한 짓도, 부끄러운 짓도, 비열한 짓도 할 수 있다. 그런 病的 현상은 지식인 당사자들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모든 분야를 오염시킨다. 眞偽분별, 善惡구분, 彼我식별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종의 從北癌(종북암)이 全身에 퍼진 모습이 2014년 한국의 일그러진 自畫像이다.

黃長燁 선생은 작고하기 전 필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김일성은 俗物이었습니다. 스탈린 앞에서 박헌영과 함께 시험을 쳐서 지도자로 뽑혔다고 자랑하더군요. 스탈린과 毛澤東은 악당이었지만 한 구석엔 영웅적 품모가 있었어요. 가족을 편애하지 않았습니니다.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권력을 넘기더니 나중엔 아들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어느 자리에서 김일성이 爲民(위민)해야 한다고 연설을 하는데 이를 듣고 있던 김정일이 저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黃 선생, 爲民이 다 뭘니까? 인민에겐 무섭게 대해야 돼요.'"

黃 선생은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라는 著書에서 김일성을 이렇게 비판하였다.

〈그는 자기 아들의 권력 앞에 아부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마지막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 정권을 아들에게 넘겨줌으로써 김정일과 함께 수처스러운 길을 걷게 되었으며, 그의 한 생의 전반부까지도 다 망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몇 달 전 있었던 시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44년 만에

처음으로 複數후보가 출마했으나 선거운동기간 중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現代 통령을 칭송하는 경쟁을 벌였다. 시리아에선 3년 넘게 계속된 內戰 으로 16만 명이 죽었다.

이 선거에 참관단을 보낸 나라가 있었다. 북한, 이란, 러시아, 짐바브웨.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 하페즈 알 아사드는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개인송배를 강화했다. 짐바브웨의 독재자 무가베도 김일성을 만난 뒤 그를 따라하다가 나라를 망쳤다. 1989년 12월 민중혁명 때 총살된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도 '김일성 모방'으로 나라와 자신을 파멸시킨 경우이다. 이른바 주체사상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에 뿌리를 둔 우상숭배의 광신적 呪術인데,

비판의식, 즉 면역성 없이 노출된 이들을 감염시키는 힘이 있다. 공산주의는 憎惡의 과학인데, 正義라는 美名으로 포장한다. 이승만, 박정희 정부에 대하여는 '탄압'이란 말을 열 번 쓴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고등학교)는 김일성 3대 독재에 대하여는 한 번도 그 용어를 쓰지 않았다. 과출소 습격 사건 수준인 보천보 사건은 모든 교과서가 다 다루고 한국을 구한 다부동 전투는 아무 교과서도 다루지 않았다. 특히 두산그룹 소속 출판사가 낸 교과서가 가장 심하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다. 대기업의 自我부정적 배신이다.

건국 대통령 탄신일은 묵살하면서 민족반역자가 난 날을 '태양절'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나라인지를 늘 의심 받을 것이다. 김일성은 그러나 대한민국에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한 점이 많다. 그의 남침으로 변영과 자유의 생명줄인 韓美동맹이 만들어졌다. 그의 남침이 없었다면 박정희는 대통령은 커녕 군대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불평분자로 세상을 하직하였을 것이다. 그의 남침으로 거대한 국군이 성장, 한국의 근대화를 견인하는 주체세력이 됐다. 그의 남침은 대기업이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국민들을, 생존투쟁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여 대한민국의 기적적 발전을 촉발시킨 것은 김일성의 전쟁범죄행위였다.

미국의 트루먼 정부도, 김일성의 남침이 소련의 조종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냉전 승리를 위한 결정적 조치를 취하였다. 일본의 경제부흥, 대만 수호, 독일의 재무장, NATO의 군사동맹조직화, 미국의 군비증강은 남침의 產物인데 이것이 그 40년 뒤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기초가 되었다. 역사는 인간이 의도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김일성에 넘어가면 주사파가 되고 그를 역이용하면 역사의 승리자가 된다. ㉔

東亞敵報

白黃洙



김일성 사망때의 동아일보 만평.

시진핑 訪韓 中國셈법 잘 봐야 한다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녀갔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한중 정상회담이었으나 뒤편에서 치열했던 중·미 각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한국의 입지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미국은 행여 중국의 지정학적 인력(引力)에 한국이 끌릴까 우려했고, ‘신형대국’ 중국은 한국을 미국에서 떼어 자기 그늘에 정렬시키고 싶었다. 결과적으로 북한 핵, 6자회담, 일본 문제는 물론 경제협력 부문에 있어서도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미흡했다. 중국에는 ‘웃음으로’, 미국에는 ‘깡빠진’ 공동성명으로 안심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략적으로 가난한 한국 외교의 현주소다.

中, 韓·美·日 동맹 못마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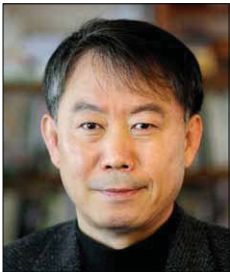
시(習)주석은 공동성명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반일 감정을 서울대학교 강연과 특별오찬에서 쏟아냈다. 굳이 임진왜란을 거론하고 한국을 친척집에 비유했다. 우회적이지만 조선시대 ‘조공외교’ 관계를 떠올리는 대목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양국이 세계질서를 양분해 이익을 챙기면서 갈등 없이 잘 지내보자는 식으로 해석한다. 일종의 ‘보스 외교’ 틀 속에서 동아시아지역은 중국의 ‘이권 구역’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한·중 공동성명 제7항에서 한반도 문제를 거론하면서 굳이 생소한 ‘소지역 협력’을 검토하자고 한 것도 한반도에서의 미국 영향력 감소를 위한 포석이다. 중국은 미국이 부쩍 공을 들이고 있는 한·미·일 동맹 강화가 영 못마땅하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직후 중국에 손을 벌렸던 미국은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에 수사적 장단은 맞추지만 이미 중국 공략법을 터득한 모양이다. 지난 4월 오바마의 일본-한국-동남아 순방길에서 센가쿠 열도(다오위다오) 분쟁에는 일본 손을 들어줬고, 미군의 필리핀 군사기지 사용권 확대 협정을 맺었다. 6월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은 작심한 듯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긴장 조성 행위를 비난했다. 5월에는 미국이 현역 중국군 관계자 5명을 산업기술 사이버 해킹 혐의로 제소하고 공개 수배했다. 중국 요리법을 깨우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전례 없는 강수다. 단지 미국의 ‘아시아 회귀’를 위한 포괄적 전략행보로만 해석 할 수 없는 사안이다.

美·中 관계 협력과 갈등 오가

미·중관계는 양자간 협력과 다자관계에서의 갈등이라는

특별기고



오승렬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 대학원장

中은 ‘한반도 非核化’

한국은 ‘북한 非核化’

頂上 발표에 차이

웃음과 修辭아닌

실질적 대안제시

원-원 이끌 內功필요

이중적 틀을 가진다. 양국 간에는 아직 자유무역협정(FTA)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 최대의 무역상대국이다. 또 미국의 10만 명 중국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중국의 신흥산업 육성 및 중서부 개발계획에 미국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미·중 협력 통로에 합의했다. 또 해마다 중·미 전략 및 경제대화를 개최해서 주요 현안을 협의한다. 반면 다자(多者) 무대인 7월 15일 브라질에서 열렸던 브릭스(BRICS) 5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을 견제하기 위한 신개발은행(NDB)과 위기대응기금(CRA) 창설을 주도했다. 한반도 사안 역시 중·미 상호간의 전략적 견제 카드로 인식한다. 최근 동아시아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미 각축의 연장선이다.

시진핑 방한 과정에서 중국의 주된 관심사는 미국 주도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로 상징하는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력 강화, 중국의 반일 정책에 대한 한국의 동조, 6자회담 재개노력 확인,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확대를 통한 한·중관계 심화, 한국인의 중국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공외교, 맹목적 북·중관계에 대한 중국내 불만 여론 무마 등이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협력 및 교류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共感)외에 그 어느 것 하나 중국 입장에서 시원한 것이 없었다. 박대통령과의 인간적 유대감을 활용해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확산하려던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친미(親美) 정책 완화에 대해 ‘흑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로 끝났다.

韓·中발표 미묘한 개념차이

문제는 한국정부의 어정쩡했던 대응이 우리의 국익 확보와 전략적 구도를 위해 최선의 것이었나 하는 점이다.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에, 박대통령은 ‘북한비핵화’에 합의했다고 설명하는 모습에서 미묘한 개념 차이를 보였고, 공동성명은 이미 사장(死藏)되다시피 한 6자회담에 집착해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궁색한 것이었다. 중국의 전략적 포석에 대해 모호한 웃음과 수사(修辭)적 대응이 아니라, 미리 조율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원-원의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는지 안타깝다. 또 일본을 교두보로 한 미국의 공세적 동아시아 정책에 중국의 의심을 살 정도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을 위해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 외교의 내공을 키우자. [K]

이곳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 여러분! 그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지요? 글로벌 경기침체가 계속되는데다 환율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지고 정부의 기업규제는 갈수록 태산이며 종업원들의 복지향상요구는 끝 간 데 모르는 상황인데도 국민경제의 어려움이 모두 기업 및 기업가의 탓인 양 몰아붙이는 세태의 인심이 여간 속상한 게 아니지요? 정부와 국민이 기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라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빛났던 창업주들의 현신

돌이켜보면 선대 창업주들은 지금보다 몇 배나 더 간절한 정부와 국민의 기대를 고스란히 감당해냈습니다. 기억나시죠. 1970~80년대 산업화에 앞장섰던 선대 창업주의 사무실 벽에는 으레 ‘산업보국’ ‘수출보국’ ‘납세보국’ ‘고용증대’ 등의 다짐 글 판이 붙어있었지요. 국가와 국민은 금탑산업훈장으로 고마움을 입 가름했지요.

그때 해마다 가을이면 수재의연금을, 겨울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봄이면

새마을성금을, 여름이면 국방성금을 듬뿍듬뿍 쾌척했지요.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장학금, 소년소녀가장 돕기에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죠.

험벗고 굶주렸던 보통 국민은 생명 줄이나 다름 없는 기업과 기업가를 ‘우리 회사’ ‘우리 회장님’ 하며 성원했죠. 어쩌다 해외에 나가 우리 기업의 선전간판이나 제품을 보면 반가워 눈시울을 붉혔지요. 고인이 되신 이병철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박두병 회장님, 조중훈 회장님, 최종현 회장님, 이양구 회장님, 김종희 회장님 등 참 존경받기에 충분한 국민의 영웅이십니다.

그분들 하나 둘 다 가시니 자제분이나 인척이 대를 이어 기업을 경영할 수밖에요. 자랑스러운 가업승계라 여겨 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았는데 2000년



최병요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2세 경영인에게 드리는 말씀

대 들어 글로벌 경영시대가 열리면서 국민들의 기대와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아도 대강 짐작되시지요. 모두에서 적시한 것처럼 경영환경과 여건이 악화된 것을 심분 이해한다 해도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기업가 정신 감퇴 실망감

우선 선대 회장들에게서 보았던 기업가정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가는 사업자나 장사꾼처럼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기술을 개발하여 국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대외경쟁력으로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며 고용확대로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것 등이 기업가 정신이자 사명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2세대 경영인들의 기

업경영행태를 우려하면서 장사꾼 수준으로 낮춰보고 있습니다. 정경유착, 재산도피, 분식회계, 불법증여, 비자금 조성, 분에 넘치는 사치, 골목상권 점유, 형제자매간 재산분쟁, 폭력행위까지 전혀 기업가답지 않은 소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경영, 융합기술에 매달려도 살아남기 어려운 과열경쟁체제인데 어찌자고 역술인의 뿔에 빠져 본분을 잃어버립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형제애를 못들어 보셨습니까. 최고 지성의 덕목을 갖춰야 할 자리에서 기껏 폭력에 의존한다는 말입니까. 거짓말과 허위는 존귀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거시경제지표가 아주 비관적입니다. 실제 실업률이 15.1%에 이른다는 설이 난무하고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이라 합니다. 가계가 위축되어 소비부진이 생산 감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심기일전, 제2의 창업정신 필요

모든 책임을 기업경영인에게 묻는 것

9면으로 이어집니다.

한국경제 국회부터 개혁돼야 산다

새 경제팀이 재정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 및 기업의 투자 유도 등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경기부양대책이 효험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왜냐면 중장기적인 경제개혁이 아닌 단기적인 부양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은 비경제적 문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짧은 압축경제성장 과정에서 불공정한 특권적 유착과 부실 부패 고리가 거미줄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그로인해 저성장으로 돌아선 한국경제에 세월호라는 대형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잠재해 있던 압축 성장통(成長痛)과 총체적 부실 부패가 수면으로 부상, 국민경제 전체를 강타하고 있다.

노무현때의 ‘대못규제’ 못풀어

세월호 사건 후 국민의 소비심리가 급속히 냉각되어 왔다.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서민 업종인 요식업 등 많은 자영업이 거의 빈사상태에 있고 관광업 등 서비스업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체감경기가 이처럼 악화하면서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건설업이 줄 도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또 지난 대선에서 고개를 든 ‘경제민주화’의 물결로 인해 대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일자리의 증대는커녕 기존 자리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개점 휴업상태에 있다. 경기가 바닥으로 내려앉으면서 건설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나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며 만들어진 ‘대못 규제’들로 인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데도 국회는 정부와 시장의 기대를 무시한 채 관련 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문제도 위험수위에 있다. 한국 노조는 기업과 근로자간 협상을 통해 경제 파이를 나누는 단체협상 단계를 넘어서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공기업에 대한 개혁을 막기 위해 불법파업도 서슴지 않고 있다. 철도파업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에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며 농성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파업을 하는 근본 이유가 근로자의 경영참여와 상급 노조의 정치운동으로 변질했다. 한국적인 특수한 노동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되지 않으면 결국 그나라는 파국을 맞는다는 것은 남미국가에서 입증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는 한국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법질서를 존중하고 원리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다양하고 수없이 많은 구성원이 서로 영리추구에 전념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구성원이 꼭 지켜야 할 대전제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정부는 편의주의로 제도를 운용하고, 정치권은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며,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앞서본 대로 법과 원칙이 무시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법과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Back to the basic)이다. 특히 국회는 이념대립과 소모적인 정쟁을 버리고 본래의 영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행정부는 현안의 경제위기를 면밀하게 분석, 그 대응책을 강구하여 추락하는 경제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공기업의 개혁, 세제개혁, 관료마피아 척결 등 경제개혁을 추진해야할



최택만

·본회 논설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부동산규제 철폐

法案처리 안돼

정부정책 발목잡아

‘官피아’ 보다

정치권 낙하산이

더 심각한 문제

것이다.

요즘 국가개혁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 양극화현상이 한층 더 심화되고 있는데다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기인된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불균형은 하위층의 신분상승 욕구를 자극해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의 경우 상위층은 소득이 증가하지만 하위층은 실질가치 소득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소득 불균형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많으니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복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다, 소비 부진과 그에 따른 일자리 부족으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法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소득의 불균형에 의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어느 나라든 세제개혁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시장실패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조세가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권은 그 반대로 ‘부자감세’를 단행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이미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의 소득을 더욱더 보장해주고 말았다. 소득 불균형을 세제가 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최고 세율과 법인세를 종전대로 환원하고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또한 빈곤해소와 저성장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저임금으로 허덕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시급하다. 노동자의 소득증대는 내수증대와 기업의 투자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전제조건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공기업과 국회의 개혁이다. 특히 비능률의 대명사인 국회의 정상운영 없이는 이번에 발표된 경기부양대책 마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새 경제팀이 경기부양책으로 내놓은 기업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 보다는 정치권이 허울만 좋은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를 자제 하고 정부는 기업투자를 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선택이다.

정부와 공기업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많은 재량권을 가지게 되면서 요즘 공공부문은 관료 마피아라는 별칭까지 생겼다. 이들 ‘신의 직장’ 공무원들과 달리 대다수 국민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한 자영업자가 되어,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도 안되는 저임금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형편이다. 실제로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 출신의 공무원이 퇴직 이후 산하기관에 취업하는 관례는 관리 감독의 부실을 야기했고, 결국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이 되었다. 또 다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관피아를 척결해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전체 공직사회 개혁은 관피아 척결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공기관의 관료 낙하산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정치권의 낙하산이다. 선거에서 탈락한 여당 출신 정치인이나 권력 실세의 측근, 또는 그 언저리에서 맴돌던 인사들이 보상 차원에서 공공기관 주요 보직을 꿰차고 앉은 경우이다. 정치권의 협력 없이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 척결은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최고 책임자를 비롯한 관료와 정치권의 성찰이 요구된다. 정부, 정치권, 기업, 국민이 모두 ‘개혁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것만이 경기를 부양시키고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약하는 지름길이다. [K]

8면에서 이어집니다.

은 절대 아닙니다만 어찌겠습니까. 여러분이 심기일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경제의 숨통을 열어주세요. 그동안의 나약함을 떨쳐버리고 강한 의지와 용기로 분발해주세요. 우선 수백 조원에 이르는 과도한 사내유보금부터 활용하십시오. 공간에 쌓아두지만 말고 기술 및 제품 개발과 공장건설, 고용확대에 과감하게 재투자 해주세요.

기업가들을 적대시하는 반(反)기업정서와 기업활동을 옥죄기만 하는 갖가지 규제 등 척박한 환경에 시달리고 있음

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어찌겠습니까. 그게 2세로 태어난 여러분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선대 회장님의 창업정신을 이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려면 선대의 창업 때만큼 어렵겠습니까.

이 국난을 앞장서 해결하겠다는 제2의 창업정신으로 무장해줄 바랍니다. 먼 훗날 2000년대의 열빠진 정치인, 파렴치한 공직자, 분수모르는 지식인, 철없는 언론인은 기억하지 못해도 여러분 기업인의 기업가정신만은 똑똑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2세 경영인이여! 심기일전합시다! [K]

언론가 소식

KBS 사장에 조대현씨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KBS 이사회가 제출한 조대현 사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조 사장은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TV국 프로듀서로 KBS에 입사했다. 도쿄특파원, TV1국 제작3 부주관, TV제작센터 제작 부주관, 기획제작국 주관, 교양국장, 제작본부 기획다큐팀장, TV제작본부 프로그램 전략기획팀 프로듀서(국장), 시사정보팀장, TV제작본부

장 등을 지냈다. 조 사장은 길 전 사장에 이은 역대 두 번째 KBS PD 출신 사장으로 임기는 2015년 11월까지다.

신문협회보 지령 500호

1985년 4월 15일 창간한 신문협회보가 29년만에 지령 500호를 기록했다. 창간 당시 타블로이드 8면으로 월 1회 발행한 회보는 협회 행사 및 회원사 소식, 언론계 동정등을 소개했으며 신문업계 동향 논평 등으로 지면을 꾸몄다.

인생 2막

李慶植 ‘Korea Post’ 발행인 겸 회장 · 전 코리아헤럴드

인터뷰 : 글·사진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영어인생 60여년 ... “민간외교 공지로 영문

압록강까지 수복했던 국군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수도 서울을 다시 빼앗긴 1951년 1·4 후퇴 때, 서울 청구 중학교 4학년이던 열여덟 살 가까머리 청소년은 피난대열에 끼여 오산 친척 집으로 갔다. 완전무장을 한 미군 정찰 수색대원들이 마을로 들이닥쳤다. “이 마을에 적군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 말을 알아듣는 주민은 아무도 없었다. 가까머리 청소년이 나섰다. “머칠 전까지 있었으나 지금은 도망가고 없다”고 말했다. 미군은 “영어를 잘 한다”고 칭찬하며 초콜릿과 C레이션을 주고 갔다. 학교 영어성적이 좋았던 덕을 톡톡히 봤다.

영어하는 사람이 드문 시절이다. 친척은 “서울은 불바다가 됐다니 장가도 들고 이 마을에 눌러 살라”고 부추겼다. 그는 겁이 덜컥 났다.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시골에서 산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궁리 끝에 오산 인근에 주둔한 미군부대 사령관에게 영문으로 편지를 썼다. 수취인은 ‘The Supreme Commander(최고 사령관)’. ‘유엔군 통역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다. 다음날 편지를 들고 부대를 찾아 보초에게 전달했다. 잠시 뒤 영국군 중위가 통역관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내일 부대가 이동하니 당장 짐을 싸가지고 오라”는 것.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취직이 됐다. 그 부대는 미군이 아니라 영국 제1연방사단 제29여단 엘스타연대 제1대대였다. 영국군 중위는 던럽, 통역관은 육군통역장교 1기생 이한선씨다. ‘영어 인생’ 60여년의 시작이다.

영문 월간 ‘Korea Post’誌齡 27년

가까머리 청소년은 어느새 여든 셋. 본회 李慶植 원로회우다. ‘인생 2막’ 무대를 설치한 건 1985년.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87년 영문 월간 ‘Korea Post’를 창간했다. 27년 간 결호 없이 발행했다. 지난 11일, 때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날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찾았다. 복도 창가에 발행된 월간지를 가지런히 진열해 놓았다. 회장실과 편집실 비좁은 공간에 자료들이 빼곡하다. 세월이 봉인된 추억의 출판사 풍경이 퇴색한 책갈피처럼 정감이 든다. 李 회우는 왜소한 체격이지만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건강미가 넘친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 데 누추한 곳까지 찾아왔다”며 반갑게 맞이한다.

-활자산업이 전반적으로 사양길인데 영업 전략은?

“올해는 세월호 여파로 광고 수주 등 어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영어 붐이 일면서 잘 나갈 때는 3만 5,000부 찍었으나 최근에는 발행 부수를 줄였어요. 영업 전략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각국 국경기념일이나 국가 원수 취임식 등 특집기획으로 판매 부수를 늘리고, 105개국 주한 대사들의 지자체 행사 참가와 상무관들의 기업 탐방 프로젝트 운영등으로 지자체 광고를 유치

하고 있습니다.”

-‘Korea Post’의 편집방향은?

“고급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종합 영문매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의 보강이나 재탕이 아니라 권위 있는 분석기사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를 한국에 소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어요.” ‘광고는 없어도 독자 없이는 못 산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Korea Post’는 국배판 68쪽 전면 컬러다. 세계 232개국의 국가원수, 주한 각국대사 및 각급 외교관, 무역대표부, 다국적 기업의 CEO, 일반인 등 폭넓게 배포한다. ‘Korea Post’ 이외에도 일간 ‘Korean Daily

Media Headlines’, ‘영문 인터넷 신문’, 한글 인터넷 版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Top Headlines Today’는 국내 유력 일간지에서 그날의 톱뉴스 헤드라인을 발췌하여, 빠르게 번역한 뒤 10쪽 정도의 분량으로 재편집, 매일 아침 ‘Korea Post’의 고정 유료 독자와 잠재 독자에게 e-메일로 무료 발송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소개한다.

이 회장은 지금도 분석기사와 특집기사 대부분은 직접 취재하고 쓰며 노익장을 과시한다.

-주한 외교사절단의 지자체 탐방과 상무관 기업 방문 성과는?

“대사들은 본인이 모르거나 잘 알지 못하는 Tour에는 참가하기를 꺼립니다. 또한 지역축제나 행사에 참석한 기사가 제대로 나와야 본국에 보고하여 자신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지요. 저희는 그동안 Protocol(외교의전)을 충분히 익혔고 Rule과 Principle을 차질 없이 실

천하여 대사들 사이에서 높은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타 포르투갈 대사는 이임하면서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한국을 즐기면서 살아온 지난 3년 동안 이경식 회장과 직원들은 외교사절들로 하여금 한국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다>고 했어요. 지자체에서는 투자유치가 늘어나고 자매결연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경제, 문화, 관광 등 교류와 협력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영어에 빠져 영어가 살았다”

이야기를 ‘인생1막’ 무대로 되돌린다.

-영국군 부대 통역은 몇 년 했는지요?

“4년 6개월 동안 노포크연대, 왕의 연대, 국왕 직속연대, 사단 헌병대 등을 돌며 근무 했어요. 부대에서 영어로 말하고 쓰며 생활하다보니 영어 실력이 쌓이는 계기가 됐지요. 선배 통역관들



李慶植 영문 월간 ‘Korea Post’ 발행인 겸 회장은 “나이를 잊고 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1·4후퇴때 오산으로 피난간 中4년생 영국군 부대 통역... ‘명품 영어’로 한국문학 번역상 수상 ... 신문사 퇴직



세월이 봉인된 편집실 풍경이 퇴색한 책갈피

이 술 마시고 노는 사이 저는 살아남으려고 영어공부에 매달렸어요. 당시 통역을 잘못하여 총살당했다는 미확인 소문이 흥흥하게 나돌았고, 1년마다 계약 경신을 해야 하기에 공부하지 않으면 낙오되기 십상이지요. 하루에 단어 100개씩을 외우기도하고, 타임과 뉴스위크

문화부장

다시 된다

5

월간지 만든다”



말한다.

통역으로 취직 후 외길 교수



처럼 정감 간다.

해 당시 영국성공회 리처드 러트(Richard Rutt) 주교가 심사위원장을 맡았어요. 박기원의 단편 ‘사랑의 집념’을 번역해 가작 입선, 3만원의 상금을 받았어요.”

자심감이 붙어 이듬해 다시 도전했으나 낙방하고 1973년 오영수 단편 ‘내일

지, 사단 영자신문, 세익스피어 명작 등 닥치는 대로 읽었죠.”

휴전협정 이후 1955년 그가 속한 영국부대도 철수했다. 통역관 시절 보류됐던 징집영장이 나와 늦은 나이에 현역입대 했다. 훈련소에서도 통역을 했고, 첩보부대 미 고문관실에 배속되어 통역병으로 근무했다. 3년 만기 제대 후 한국문학 번역에 매달렸다. ‘명품 영어’ 소문이 나면서 일감이 늘었다. 한 대기업 브랜드와 사훈을 번역해주고 A4 용지 1장 분량에 300만원까지 받았다. 요즘 화폐가치로 따지면 3억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처음 직장을 잡은 곳은 1965년 ‘뉴 아시아 프레스(New Asia Press)’란 통신사. 말이 통신사지 한국 일간신문의 주요기사를

의 삽화’를 번역하여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내일의 삽화’는 인민군 의용군인 주인공이 나오되었다가 인민군 패잔병으로 편입되면서 일어나는 갈등을 다뤘다. 상금도 경총 뛰어 20만원을 받았다. 원어민이나 원어민과 내국인의 공역(共譯)이 많았는데 내국인의 단독 번역은 그가 처음이다.

언론통폐합으로 신문사 떠나

본격적으로 한국문학 번역 일을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 코리아헤럴드의 고정직은 사양하고 일주일에 한번 칼럼을 쓰기로 했다. 당시 김수용 편집국장을 통해 Journalist English가 일반 영문과는 다른 점을 많이 배웠다. 얼마 뒤 새로 부임한 윤익한 편집국장의 제의로 문화부장 직을 맡았다. “영문은 글쓰는 속도와 질이 정비례합니다. 글이란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 범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휘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 문체가 다채로워지지요. 당시 특집부장까지 겸하게 되어 많은 기사를 썼습니다. 효과 충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정신적 운동인 ‘새마음 운동’ 특집 기획 시리즈, 주한 각국 대사와 부인을 인터뷰하는 ‘Bridging the Gaps’, 주한 외교가의 각종 행사를 취재한 ‘People & Events’가 기억에 남습니다. 외교가 행사를 다룬 노하우가 영자월간지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1980년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우탄을 맞고 그는 신문사를 떠났다.

다시 번역 일을 시작하려는데 문화공보부 해외공보관실 전문위원자리가 났는데 일해 보지않겠느냐는 친구의 제의가 들어와 정부간행물과 보도자료를 번역했다. 대기업 기획조정실에서 영문 사보를 창간해 달라는제의를 받고 자리를 옮겼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안정된 시절이었다. 숙원이던 대학공부를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통신대학교(The Pacific Western University)에 입학하여 통신 강의를 들었다. 학사, 석사 과정을 거친 뒤 ‘한국의 언론사’ (영문)로 1987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교 인정 논란이 일고 있지만 개의하지 않습니다. 학위와 졸업증명서는 로펌의 공증이 되어있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청은 이를 증명하여 서명을 하고 있어요. 훌륭한 분들을 많이 배출했고,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됐으니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는 2005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타슈켄트 국립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양학에 대한 지식과 양국 간 교육과학기술 교류협력과 우호증진 공로다. 2009년에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양국 우호 공로훈장을 받았다. 외국인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이다.

“나이 잊고 일하는 즐거움”

-일과는?

“나이 들면 잠이 없다더니 5시 30분 경이면 일어납니다. 서빙고동 단독주택 옥상 화분에 물을 준 뒤 아침 식사는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③

지능활동 치매발생위험 줄인다

중년이후 책이나 신문을 보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상의 정보를 검색한다든지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등 뇌 기능을 자극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노년에 치매 발생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포럼 상임이사

학술지 미국 의학회 내과학지(JAMA Internal Medicine)는 최근 미국 미네소타주에 위치한 메이오 클리닉 재단(Mayo Clinic and Foundation) 방사선과 베무리(Prashanthi Vemuri) 교수 팀의 이 같은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베무리 교수 팀은 2004~2009년 사이에 메이어 클리닉 고령자 조사에 참여한 70~8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과거의 활발한 인지활동이 치매 발생을 감소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 분석했다. 첫 조사에서 1,700명은 인지기능이 정상이었고 300명은 경도인지기능장애(MCI : mild cognitive impairment)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경도인지장애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베무리 교수 팀은 모든 대상자들에게 과거의 교육정도와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과거에 종사했던 모든 직업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능수준을 점수화하였다. 또 대상자들에게 지난 12개월 동안 그리고 중년에 어느 정도의 지능을 요구하는 활동을 했는지 등에 대해 질문서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치매

발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APOE 4 유전자 검사도 하였다.

조사결과 유전자 검사 당시 APOE 4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상 필요로 하는 지능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나

이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뇌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다.

반면 APOE 4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해도 교육수준이 높고 높은 지능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로 이행하는 기간이 9년 정도 지연되어 있었다.

베무리 교수는 교육수준이나 직업을 제외하더라도 중년에 일상적으로 지능을 자극하는 생활을 해 온 사람들의 치매 발생위험은 낮았다고 했다.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육수준 그리고 직업 등 세 가지를 함께 할 때 치매발생위험이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수준이 낮고 높은 지능수준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라도 일상생활에서 지능을 자극하는 생활을 하면 치매발생이 최소한 3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희망적인 사실은 비록 교육수준이 낮고 과거 지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지 못했 다 해도 중년부터 평소에 지능을 자극하는 일상생활을 하면 치매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

가볍게 하고 7시 30분경에 출근해 신문을 보고 그날 할 일을 챙깁니다. 낮엔 외교관들을 가끔 만나지요.”

-보람은?

“나이를 잊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보람이죠. 일할 수 있다는 즐거움은 보수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영문 월간지를 만들면서 세계 정상들을 인터뷰 한 것도 보람이지요. 영국의 메이저수상(1996), 필리핀 라모스 대통령(1995), 핀란드 할로넨수상(2002), 나이지리아 오바산조 대통령(2000), 노르웨이 본데빅수상(2002), 방글라데시 지아 대통령(1995), 몽고의 바가반디 대통령(1999) 등을 만난 것은 일생의 행운이죠. 김대중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는 면담도 매체의 영향력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발행인이 언론인이고 영업에는 문외한이라 늘 수익창출에 고전을 면치 못하죠. 매체가 국가 이익과 홍보에 큰

몫을 하는 만큼 정부에서 일정 부수를 구입하여 해외공관, 코트라와 코이카 등 국제협력기관에 배포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회장은 또 “6·25를 겪은 세대, 그 가운데서도 언론인 출신들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젊은 세대들에게 SNS를 통해 공산주의 본질과 북한의 실체를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정부에서 활동비를 지원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고 제의한다.

-언제까지 일하시렵니까?

“기력이 다해 더 이상 컴퓨터 키보드를 두들길 힘이 없어 질 때까지요(웃음). 키보드를 두들기다 눈을 감는 것이 희망이고 소원입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을 느낀다. 저서는 ‘불타의 탄생’(영문), ‘한국의 첫 서구渡來人’(영문), ‘천가와 백가’(번역), ‘사랑의 집념’(번역) 등이 있다. 지난해 금혼식을 치른 부인 유영노 여사(75) 사이에 2남 1녀. [4]

시진핑 訪韓 “北核 해법 미흡” 비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0여명 사절을 데리고 7월3일부터 1박2일간 국빈 방한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일부 중국 언론은 한중 관계가 ‘政冷經熱’에서 ‘政熱經熱’로 변했다고 했다, 우리 언론은 중국의 G2 부상으로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에서 양국이 성숙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구축과 한중FTA 연내 타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해양경계획정 협상 개시, 미세먼지 감축에 합의했다는 점 등을 평가했다. 북한보다 먼저 방한한 것도 대북한 강력 경고로 평가했으나 한국을 한미일 공조체제에서 떼어내 중국 편으로 당기려는 시도에는 현명한 외교역량이 요구된다고 썼다. 신문들은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핵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지만 시 주석은 ‘북한 비핵화-북의 핵실험 반대’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고수하며 실효성 없는 6자회담 재개 입장을 밝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신뢰관계”라는 공동성명 수사가 무색했다.

“북핵 해결 없이 동반자 되겠나”

조선은 4일 사설로 “한·중 글로벌 동반자 관계는 화려한 외교 이벤트나 수사로 이뤄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북핵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중국은 한계를 드러낸 기존 북핵 해법만 고집할 게 아니라 북한 문제에 관한 한·중 논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 고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동아는 “이 정도로 북한 감정은이 핵 포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달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핵 문제의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비판했다. 문화도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표현 고수는 한국이나 주한 미군, 또는 주일 미군의 핵무기, 핵 잠수함·항공모함까지 포괄하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초점을 흐리려는 의도다”라면서 아베 일 총리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 방침과 관련, “중국이라는 ‘북핵의 뒷문’이 닫히지 않고 있는데, 일본은 옆문을 열겠다고 나선 형세다. ‘북핵 외교’가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비판했다. 중앙은 ‘한·중 관계 새 이정표 세

운 시진핑 방한’ 사설에서 “(북 핵은) 우리로서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 정상의 공동인식을 토대로 구체적 진전을 도출해내는 것은 양국 외교팀의 숙제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문들은 한중 접근과 한미동맹 사이에서 현명한 외교대책을 촉구했다. 동아는 5일 사설 ‘우리 땅에서 일본 때린 시진핑, 한국의 균형 외교 흔들나’에서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현안에 따라 한미일과 한중 공조를 놓고 ‘등거리 외교’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동아는 전날 “한중은 한미동맹을 대체하거나

신문시평



김명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지렛대가 더 긴요하다고 할 것이다.

공동선언에서 빠진 일본 문제는 시 주석이 서울대 강연에서 중국의 임진왜란 참전까지 들먹이자 청와대는 일본 집단자위권 확대와 고노담화 검증 우려가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동아는 “중국은 임진왜란 발발 44년 뒤 병자호란을 일으켰고, 북한을 돕기 위해 6·25전쟁에 개입하는 등 한국을

괴롭힌 역사도 분명 존재한다”고 중국이 반성할 대목을 적시했다. 경향은 사실로 “대일압박 공조를 안 한 것은 바람직했다. 일본과 과거사·영토 문제로 갈등하지만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다.

韓·美 관계 손상없게 外交의 妙촉구 유병언 관련 적극적인 취재 아쉬워

능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이 땅의 자유와 번영을 뒷받침해온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협력도 탄력적으로 확대해가는 외교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썼었다. 중앙의 4일 사설은 “큰 틀에서 보아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은 중국 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한·중 관계 발전이 한·미 동맹에 손상을 초래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한국 외교의 지난한 숙제로 남게 됐다”고 했다. 조선은 “중국은 무엇보다 한국이 미국·일본 쪽으로 급속히 기울어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한국은 점차 이 문제에서 균형추 같은 존재가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유럽식 집단안보체제라도 갖추지 않는 한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미국을 대체할 존재는 없다. ‘등거리 외교’가 말은 쉽지만 급부상하는 중국 ‘블랙홀’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미동맹

한·중이 한편이 되어 일본을 몰아치는 것은 결코 한국의 외교 전략이 될 수 없다”고 썼다. 그러나 기사에선 한중이 일본 대응에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인상은 “박 정부가 국내정치적 인기를 위해 외교를 희생시킨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은 사실에서 한중이 아베 정권에 대해 공개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 “동맹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한일관계 변화여지도 염두에 뒀을 법하지만 일본의 도발과 헌법 재해석에 분노하는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디플로매트 기고에서 “한국은 일본을 떼거리로 괴롭히는 전략을 거부하고 대신 미국에 압력을 가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강화를 억제하는 전략을 택해 대중 관계에서 미한 동맹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지지를

얻으려고 미한 동맹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목표는 사회주의의 현대화라고 말했다. 북한과 친북 세력의 주장인 ‘자주적 평화통일’도 지지했다. 동아 김순덕 칼럼은 “어쩌면 시진핑에게 김치 수출 정도를 받아내고 우리는 한미동맹까지는 아니겠지만 한미일 공조와 미국의 핵우산까지 잃은 것이 아닌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썼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동맹이 아닌 한중관계는 언제라도 큰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다. 한국일보는 “미국이 강력히 희망하는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를 한 순간에 흔들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자 북송도 그렇다. 신문들은 ‘매력 공세’에 취해 전략적 동반자라는 한중 관계의 한계와 본질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

유병언 특검 요구 없어 이상

세월호 침몰 주범, 공공의 적, ‘유병언 변사체’가 발견 40일이 지나 일단 확인돼 자살, 타살, 자연사, 시체 바뀌치기 등 온갖 추론이 등장했고 세월호 수사와 구상권 행사에 장애물로 등장했다. 동아는 “‘죽은 유병언’ 찾아 헤맨 검경, 세월호 배후 밝힐 수 있겠나”사설에서 “유 씨가 세모그룹 부도 이후 지금 같은 거대한 ‘지하왕국’을 구축한 것을 보면 정관계 배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유 씨가 체포됐다면 정관계 비호세력은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썼다.

문화도 사설에서 “주범의 사망은 수사 재판에 많은 차질을 초래할 것이다. 곳곳의 ‘유병언 장학생’ 추적도 어려워졌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이 유 씨에게 있는 양 수사 분위기를 몰아 정부의 책임을 가리려 들었다는 의심이 파다한 터에 유 씨 사망의 경위를 제대로 밝히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가리는 수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들은 검경의 무능을 질타하면서도 유병언 특검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수사는 제보가 긴요한데 거액 현상금도 생포에 무위였다. 유병언 확인 능력엔 언론 책임도 있다. 순천서, 전남 도경, 순천 지검 출입 기자나 특별취재반의 적극 취재가 아쉬웠다. [4]

사우회 소식

회보 朝友 15호 발행

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우회(회장 인보길·본회 부회장)는 지난 6월 30일자로 사우회보 ‘朝友’ 15호를 발행했다. 타블로이드 20면 컬러판으로 나온 이번 회보는 조선미디어 상암사옥 ‘디지털큐브’ 완공 소식을 머릿기사로 다뤘으며 ‘蕩子’ 교회 품에 안기다(1면 사이드 톱)가 눈길을 끈다.

김원태 회장 선임

중앙매스컴

중앙매스컴 사우회는 7월 1일자로 김원태 사수가 새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를 계기

로 2명의 부회장과 사무국장을 포함 운영위원 18명을 선임하는 등 제 5기 사우회 집행부를 구성했다.

지난 6월 28일 발행한 사우회보 ‘중앙매스컴’ 91호에는 이 같은 집행부 구성 소식과 사우회 회칙 일부 개정 소식, 기금 5,312만원 새집행부에 인계 등 사우회 운영현황이 소개됐다. 부회장에는 이범락(편집국) 정 훈(TBC 편성국) 사수가 선임됐다. 이범락 부회장은 사우회보 편집인도 겸하게 된다.

이번 사우회보는 특히 이목회, 판우회, 중산회, 서우회, 중앙그린회, 문우사랑회, 중편회, 말목회, 중출회 등 다양

한 동우회 소식이 소개돼 눈길을 끈다.

사우회보 147호 발행

KBS

KBS사우회(회장 정근춘)는 지난 7월 1일자로 사우회보 147호를 발행했다. 타블로이드 8면 컬러판으로 나온 이번호엔 방송 3사 사우회가 친목과 교류를 도모하기로 했다는 머리 기사가 눈길을 끈다.

하반기 운영계획 논의

한국경제

한국경제 사우회는 지난 7월16일(수요일) 서울근교 북한산기슭 계곡에서 회원단합야유회를 가졌다.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단합대회에선 사우회 하반기



운영계획과 2015년 정기총회에 따른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했다.(사진)

사우회보 31호 발행

SBS

SBS사우회(회장 김수웅)는 지난 7월 1일자로 회보 31호를 발간했다. ‘사우회 사회공헌 활동 나선다’를 머릿기사로 한 이 회보에는 ‘울릉도 해안따라 옛길따라’ 동호회 연합트레킹 소식, ‘문화교실 연다’ 등이 실려있다.

KBS內 ‘게이트 키퍼’ 기능 실종

1974년 12월, 나는 한국방송공사 2기 생 공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자가 되었다. 대학교 졸업반 학생이던 나에게 드러난 KBS의 속살은 충격이었다. 그때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9시 뉴스가 노골적으로 여당의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었다. 그 뉴스를 편집부 기자가 자조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을 보았다.

유신시절 정권홍보기관 역할

유신 체제의 엄혹한 기운이 짓누르고 있던 당시, 국영에서 공영 체제로 전환된 KBS는 정부와 정권 홍보 기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문을 닫은 타 언론 기관에서 넘어온 기자들이 합세한 내부 분위기는 달랐다. 숙직 때면 선배 기자들의 정부 성토를 들어야 했다. 취재 현장에서 제대로 기자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던 KBS 기자들의 비판 의식은 무대의 뒤에서 형형하게 살아 있었다. 좋은 기자상을 보여준 선배들 가운데는 스스로 KBS를 떠나는 분도 있었다. 그 가운데는 국내 상황에 절망하고 아예 외국으로 떠난 사람도 있었다.

나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고 직업을 바꿔야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외신부로 배속받자마자 밀어 닦친 월남 패망 사태로 나는 앞뒤 가릴 새도 없이 일의 격랑 속으로 밀려들어갔다. 아침부터 밤까지 매시간 뉴스에 기사와 방송으로 쫓아다니느라 경황이 없었다. 미혼이었던 나는 거의 매일 밤을 회사에서 보내며 일했다.

그것은 언론 자유를 말하기 이전에 방송이 갖는 책무와 역할을 체험하게 한 일이었다. 월남 패망 자체가 남북 분단 상태의 우리에게 무척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미증유의 사태 앞에서 선배 기자들도 흔연히 몸을 던졌다. 어쩌면 사실 보도에만 충실하면 되었던 외신

보도가 고민없이 기자 본령에 몰입할 수 있는 길이기도 했다.

1980년 언론 통폐합 전에 TV 3사의 뉴스 시청률 가운데 KBS는 꼴찌였다. 민영 TBC가 단연 선두였고, 다음이 MBC였다. KBS 기자들도 당연히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정부 홍보를 하는 언론 기관이 겪어야 하는 숙명이었다. 그러나 대

방 송 시 평



유자효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특파원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격노케했고, 만찬장에서도 시국 사태 대처를 잘 못한다는 힐난이 이어지자 참사에 이르게됐다는 분석도 있다.

1980년 언론 통폐합으로 한국 TV방송 체계가 KBS와 MBC의 양대 체제로 전환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TBC와 DBS, CBS 등으로부터 기자들이 넘어온 KBS는 컬러 시대의 도래와 함께 MBC와 치열

KBS에서 실종된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은 KBS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역사 인식 논란 등 개각 인사 검증 연속 보도’에 대해 2014년도 ‘BJC 보도상’을 수여하였다. 방송기자클럽은 수상 이유로 ‘문창극 총리 후보를 비롯해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대한 개선 움직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시의성, 사회적 영향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작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후보의 검증 보도와 관련해서는 발언의 진의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중이다. 가치 판단이 정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보도상을 수여한 것도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신뢰 잃는것은 순식간

언론은 독자와 시청취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갖는다. 신뢰를 얻기는 어렵지만 신뢰를 잃는 것은 순식간이다. 따라서 기사에 대한 데스크의 게이트 키퍼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는 오늘 술회한 KBS의 과거를 비추어보면 알 수 있다.

방송 환경의 변화는 시청자들이 KBS 뉴스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게 만들고 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예술원 회원인 오세영 시인은 지난 7월 18일 문화일보와의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MBC와 SBS는 보지 말아야 할 방송이고, KBS는 좀 낫지만 가장 나은 방송은 EBS’라고... 지상파 보도 방송의 일대 자성을 촉구하는 말이라고 여겨지지 않는가? [4]

지휘부 공백상태서 검증안된 뉴스방영 방송기자클럽의 보도상 수여 이해안돼

통령의 시청률 1위는 KBS 뉴스였고, 이에 따라 고관대작들도 KBS 뉴스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운명의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만찬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본 TV 프로그램이 KBS 7시 뉴스였다. 뉴스에서 대통령이 참석한 삼교천 방조제 소식을 보고 난 뒤, TV를 끄고 술을 마시다 참변이 일어났던 것이다.

언론통폐합으로 轉機맞아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참석한 공식 행사도 KBS 송신소 준공이었다. 그 송신소는 대북방송용인데 차지철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안내해야할 소관부서장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대통령 탑승 헬기에 못타게 한 것이 김부장을

한 뉴스 경쟁을 벌였다.

그뒤 30년, KBS 뉴스는 시청률과 신뢰도 1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영원한 승자는 없는 것처럼 KBS 보도는 다시 흔들리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건 보도 때 유가족들로부터 받은 모욕 이후 기자들의 분노가 파업으로 이어졌고, 이는 사장의 퇴진으로까지 번졌다. 회사 최고 지휘부가 상실된 가운데 빚어진 문창극 총리 후보의 교회 발언 보도 파문. 이는 고위 공직자 후보에 대한 언론의 당연한 검증이긴 했지만 게이트 키퍼 실종의 결과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했다. 과거 KBS 사태 때도 데스크는 지켜졌다. 검증되지 않은 뉴스는 방송되지 못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한 책임자는 엄히 문책되었다. 언론사의 생명과도 같은 게이트 키퍼 기능이 오늘의

6·25참전 언론인 유가족 본회방문, 명패앞서 기념촬영

대한언론인회와 국방부가 공동 주관한 6·25참전언론인명패증정 소식이 도하 각지에 보도되자 명패증정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6·25참전언론인 유가족들이 본회를 찾아 축소판 명패와 국방장관 감사장을 직접 수교하고 프레스클럽에 헌액 된 명패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돌아갔다.

지금까지 본회를 방문한 6·25참전언론인 유가족은 이혜복(종군기자) 전 대한언론인회 상임고문 미망인 방봉세 여사(사진1)를 비롯, 최기덕씨(종군기자)장남 준택씨 부부(사진2), 이필면씨(종군기자) 만사위 김일영씨(예비역 해군제독(사진3)), 이윤수씨(종군기자) 장남 병문씨(사진4), 장명덕씨(종군기자) 장남 봉식씨 등이다.

한편 김은구 대한언론인회 회장과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 회장은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원에 입원 가료중인 송두빈 회우(참전언론인)를 문병하고 축소 명패와 국방장관 감사장을 전달했다. 구본건 회우(종군기자)의 계씨 본완씨도 본회를 방문, 명패를 받아갔다. [4]



1999년 이른 봄에 치매에 관한 책 한 권을 출간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이름을 빌렸지만 100% 내가 쓴 책이다. 책 이름은 『치매차단 - 오는 것이 보이면 막을 수 있다』

1993년 다니던 잡지사를 그만두고 출판사를 차렸다. ‘인생도처 유청산(人生到處有靑山)’ 인생에는 어디에나 푸른 뫼가 있나니- 어디인들 못살까보냐, 그래서 출판사 이름을 ‘푸른뫼’ 곧 ‘청산’으로 정하고 책을 펴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 좋은 필자 구하기도 어려우니 내가 쓰자. 발행인이 필자가 된 것이다. 책 읽는 일이 생업(生業)이기도 했으니 쓰는 일이 어려울게 있겠나. 그 결과 10년 동안에 9권의 책을 써서 출간했는데 판매성적이 만만찮았다. 전문의의 이름을 빌어 건강서적6권 중의 3권, 『피를 맑게 하는 건강 장수법, 『장이 깨끗하면 머리가 맑다, 『통풍 다스리기 - 잘 먹고 잘 마시는 남자가 잘 걸리는 병』은 각각 10만부 이상씩 팔려서 속으로 ‘돈버는 일이 별것 아니군’...기자 생활때 꿈도 못꾸던 목돈을 만졌으니 그야말로 ‘인생도처 유청산’인가?

이건 용담(冗談)에 속하지만 내가 책을 쓸때는 먼저 주제와 제목을 정해놓고 자료도서를 모으기 시작하므로 책을 많이 읽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충실한 자료도서라 할지라도 한두권만 읽고 책을 쓰면 그건 표절에 든다. 그러므로 나는 생업으로도 책을 읽어야 하므로 어릴때부터 송(宋)때 진종(眞宗)의 권학문(勸學文)에 있는 ‘서중자유천종속(書中自有千鍾粟)’이란 글귀를 철통같이 믿어 온바다. 서중자유천종속은 책 속에 천석(千石)의 조, 곧 봉록(俸祿)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1999년 2월에 출간한 『치매차단-오는 것이 보이면 막을 수 있다』는 기대와는 달리 초판 3,000부로 끝났다. 주문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서점에 간 초판본도 되돌아 왔으니 이건 참 패다. 그 이유를 짐작하기로는 건강서적은 필요로하는 독자가 사기 마련인데 치매책은 치매걸린 사람이 독자가 될수 있겠나? 그리고 멀쩡한 사람은 자기와 치매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할터이니 책이 팔릴 턱이 없지.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여전히 치매에 관한 일본서적 신간을 발견하면 한번 훑어보고는 사서 읽고 있다. 지금 읽고 있는 『장수뇌 만들기』와 『기억력의 정체』는 올해(2014년) 6월에 간행된 최신간 일본서적이지만 최신간이 귀중한 최신자료를 싣고 있는 것은 아니다. 거듭 읽고 있는 한권은 2005년 2월에 제1판이 간행된 『노년기 치매의 극복을 위하여』라는 제목부터 연구서적이라는 느낌을 주는 치매 전문서적이다.

1990년부터 일본은 ‘장수과학 총합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치매는 그 중심과제가 되고 있다. ‘뇌의 10년’의 연구성과를 의료관계자나 국민에게 보급하기 위해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한 형태로 출판한 것이 이 책이다. 38명의 신경정신과 전문가(교수와 의사)들이 공동집필함으로써 현재 일본의 치매연구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최고 수준의 연구서적이라 할 수있다. 이 책에 ‘로테르담 스터디(Rotterdam study)’가 나온다. ‘로테르담 스터디’는 네덜란드의 항구도시 로테르담 교외의 움무드

새로쓰는 병은 낫는다 <10> 양생법의 뿌리와 열매

치매차단 - 오는 것이 보이면 막을 수 있다 (上)

(Ommood)에서 1990년부터 시작된 조사로서 55-106세의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연구다. 로테르담 스터디에서 드러난 한 대목은 치매와 생활습관병의 상관관계다.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이 치매 발증(發症)과 유관하다는 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연구자나 정신신경과의사들이 언급하는 바로 이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특히 로테르담 스터디에서 밝혀진 알츠하이머와 당뇨병의 관계는 당뇨병이 뇌졸중의 위험인자(因子)인것처럼 당뇨병이 알츠하이머의 위험인자로서 발증에 관여한다는 것이다.

55세 이상의 주민 6,370명을 2년동안



권도홍

·본회 회우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전 주부생활 부사장

식사요법을 5년만에 고쳐서 환자에 맞춰 식사요법을 개별화하도록 밝히고 유일한(One-Size-Fits-All) 식사 패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태까지 주장(推獎)되어온 ‘지중해식’, ‘베지터리언식’, ‘당질제한식’ 등 환자마다의 다양한 식사패턴이 질병을 개선하는데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당질제한은 쌀밥

과 빵, 면류(麵類)를 줄임으로써 당뇨병을 비롯한 생활습관병을 개선하고 그로써 치매발증을 간접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이다. 당질제한은 칼로리제한처럼 리바운드가 적고, 지속적인 체중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당뇨병 뿐만 아니라 치

진전한 생활습관이 치매예방 지름길

추적조사한 결과 그 가운데 692명(10.9%)이 당뇨병으로 밝혀졌다. 그 중의 126명이 치매증으로 판정되었으며 그 가운데 89명이 알츠하이머 환자였다. 당뇨병을 앓는 사람은 그렇지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발증의 위험률은 거의 2배였다. 그러나 당뇨병의 치료형태에서 그 위험률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약물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의 상대(相對)위험률은 1. 3인데 대해 경구(經口)당뇨병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2. 4, 인슐린 주사를 맞는 환자는 4. 3 이었다. 결국 당뇨병 병태(病態)가 무거운 환자일수록 치매가 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당뇨병의 알츠하이머병 발증에 대한 상대위험률은 1. 9로 높는데 혈관성치매의 2. 0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알츠하이머 환자가 뇌졸중을 병발하고 있는 경우의 상대위험률은 3. 0으로 뛰어오른다. 이 연구로 당뇨병은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양자에 대해 발증을 촉진시키고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다. 동맥경화나 고혈압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들 병변(病變)이 치매를 발증시킨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그렇다면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비대증등 생활습관병이 치매발증에 관여하고 있음을 드러낸 이상,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습관이 치매발증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당질제한(糖質制限)’이 치매를 억제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 떠오르게 된다.

당질제한은 무엇인가, 당뇨병을 개선하는 방법은 칼로리제한인가? 당질제한인가? 2013년 10월 미국당뇨병 학회는

주병(齒周病), 고혈압, 지질(脂質)이상증도 개선하기 쉽다는 어느 체험단처럼 유효한 면을 지니고 있다.

‘나의 치병기(治病記)’에 쓰겠지만 나는 76세때 낯선 손님처럼 찾아온 당뇨병을 당질제한과 지속적인 운동으로 극복한 일이 있다. 한번도 경구당뇨약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는 일 없이 불치라는 병마에서 벗어난 것이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문제이므로 인슐린을 아끼면 되지않겠나 하는 단순명쾌한 생각으로 대처한 것이 주효(奏效)한 것이다. 지금도 그때의 식습관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하루 3끼를 먹되 밥은 하루한끼, 요컨대 인슐린을 아낌으로써 건강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로써 고혈압과 통풍(痛風)도 덩으로 고쳐서 지금은 복용하는 약이 한가지도 없고 소식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헬스클럽에서의 유산소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치매예방에 최강의 방책이라는 ‘듀얼태스크(dualtask)’는 다음 회에 쓰겠다.

치매는 오는 것이 보이나? 소리없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혈관성치매든 알츠하이머치매든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첫째는 기억력 감퇴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나이탓인지 치매의 시발인지 가늠하기는 간단치 않다.

첫째로 나타는 기억력 장애는

① 전화번호나 사람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② 언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이를테면 어제 저녁에 밥을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수상하다. 저녁밥을 먹은 것은 기억

하되 무엇을 먹었는지 디테일을 모르면 나이탓으로 본다.

③ 전에 할줄 알던 일을 못하거나 새로운 일을 배우기 어렵게 된다.

④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기면 금방 적응하기 어렵다. 이를테면 판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길을 못찾아 헤매게 된다.

⑤ 같은 이야기를 여러사람에게 되풀이한다.

⑥ 이야기 도중 조금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까먹는다.

⑦ 같은 물건(음식)을 계속 사는 바람에 냉장고안에 같은 물건이 쌓인다.

⑧ 외출할 때 수도꼭지를 닫지 않거나 가스불을 끄지 않고 나간다.

⑨ 자주 만나는 친구를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언어장애

① 표현력이 줄어들어 말수가 적어지고 단순해진다.

② 편지를 쓰기 어려워진다.

③ 신문이나 잡지를 읽을때 이야기 줄거리를 파악하지 못한다.

④ 책을 여러번 읽어야 문장을 이해하게 된다.

◎ 방향감각 상실

① 늘 다니던 길을 헤맨다.

② 잘 알던 곳이 어딘지 모르게 된다.

◎ 계산 능력저하

① 물건을 산뒤 우수리를 가늠하지 못한다. 치매의 초기에 뺄셈을 못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② 은행에서 돈의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

③ 돈 둔대를 잊어버리고 도둑 맞았다고 우긴다.

◎ 식성이 바뀐다.

① 손자용 스낵, 특히 단것을 보는대로 먹어치우고는 안먹었다고 우긴다.

② 과식을 하게된다.

◎ 성격과 감정의 변화

① 의욕적이었던 사람이 만사 귀찮아하고 흥미를 잃는다.

② 사교적이었던 사람이 외출을 꺼리고 집에 처박힌다.

③ 성격이 급하고 괄괄했던 사람이 느긋하고 부드러워진다.

④ 까다롭고 꼼꼼한 성격이 느슨하게 변한다.

⑤ 성격이 단순해져서 어린애처럼된다.

⑥ 너그럽고 자상한 편이었으나 점차 이기적으로 변한다.

⑦ 목욕, 양치질등 위생에 게을러져서 지저분해진다.

기억장애만 몇가지 있을 뿐 다른 사고력이나 행동력등 인지(認知)능력이 관찰을때 단순기억장애, 곧 나이 탓으로 보이지만 자식의 수를 모르거나 지금 있는 장소나 지금이 몇월인지 어느 계절인지 모르면 치매로 본다는데 치매의 전구(前驅)증상이라고 하는 경도인지장애(輕度認知障害)일때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치매로의 진행은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도인지장애환자는 정상인과 치매환자의 중간에 있으며 시간에 따라 치매 쪽으로 일정한 비율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말하자면 치매예비군인 셈이다. [출처]

문화융성
행복풍성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문화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溫故知新

아름다운 여인 陳芸



황원갑

·본회 회우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소설가
·역사 연구가

에 있는 것이지 헛된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오.” “세상에서 사이가 어긋나는 것은 대개 장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저를 원통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억울해서 죽을 거예요.” 나는 그녀를 꼭 껴안고 한참동안이나 쓰다듬어 주었더니 비로소 화를 풀고 웃었다. 이때부터 “미안해요”라든가 “죄송해요”란 말은 우리의 말

끝마다 붙어다니게 되었다. —

또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

— “두보(杜甫)는 시를 집대성한 이로서 학자들은 대체로 그를 으뜸으로 치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이백을 더 좋아하오?” “시의 체제가 근엄하고 사상이 성숙된 것이야 실로 두보의 독보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백의 시는 마치 고야산(姑射山)에 있는 신선같이 낙화유수의 맛이 있어 참으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두보가 이

백보다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단지 저의 사심(私心)이 두보의 시를 높이는 마음이 얹고 이백의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두터울 뿐이어요.” —

운이의 착하고 슬기롭고 사랑스러움이 이와 같았다. 하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마음씨의 운이는 병마에 시달리다가 한창 나이에 아깝게도 객지에서 요절하고 말았다. ‘삶이란 봄날의 꿈과 같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네(事始春夢了無痕)’라고 소동파(蘇東坡)가 읊은 것처럼 이같이 속기(俗氣)를 벗은 가인(佳人)의 운명은 박명(薄命)한 것인가.

세상이 쉼 새 없이 변하면서 이제는 여성의 지위와 활동반경이 옛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이 달라졌다.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남녀동등시대를 지나 여성상위시대로 생각될 정도다. 따라서 가끔은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아져가고 기가 죽어서 마침내는 왜소해져버린 남성의 위상을 측은히 여기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여성다운 참된 가치는 용모나 겉치장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머리에 든 것은 별로 없으면서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여성만의 천부의 자산(?)을 무기로 얼빠진 사내들을 잘 주무른다고 해서 잘난 여자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미인은 미인대회에 나가지 않아도 아름다움을 알아주듯이, 참으로 슬기로운 여자는 똑똑한 척하지 않아도 내면에서 우러나는 아름다움으로써 만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다. [2]

마찬가지인 고달픈 생활의 틈새에서도 여성다운 섬세한 정감을 잃지 않고 뜻 깊고 아름다운 한 삶을 보냈다. 운이의 다정다감한 성품은 <부생육기>의 다음 대목에서도 잘 나타난다.

— 나는 성격이 솔직하고 또 자질구레한 일에 매이지 않았는데 운이는 고리삭은 선비처럼 예절을 지나치게 지켰다. 어찌다가 내가 그녀에게 옷을 걸쳐주거나 소매를 바로 잡아주면 그녀는 반드시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씩이나 했고, 수건이나 부채 같은 것을 건네주면 또 반드시 일어나서 받았다. 나는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대는 예절로써 나를 잡아매려는 거요? 속담에 ‘예절을 너무 차리면 속임수가 꼭 있다’고 하지 않았소?” 운이는 금방 두 뺨이 발갛게 되어, “공손하게 예절을 차리는 것을 어찌 거꾸로 속임수가 있다고 하세요?” “공경하는 것은 마음속

동서고금을 통해 재주 있는 여인, 아름다운 여인, 남녀 누구나 본받을만한 훌륭한 여인이 많았다. 우리나라에도 ‘영원한 한국의 어머니상’으로 추앙받는 신사임당(申師任堂)을 비롯하여 허난설헌(許蘭雪軒)·황진이(黃眞伊)·이매창(李梅窓)처럼 덕성이 높거나 재주가 빼어난 여인이 많았지만, 중국의 진운(陳芸)도 여성의 미덕을 두루 갖춘 사랑스러운 여인이었다. 운이는 청나라 때 사람 심복(沈復)의 아내였다. 필자가 그녀를 알게 된 것은 임어당(林語堂)이 <생활의 발견>에서, ‘운이는 중국문학에 있어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이라고 소개한 대목을 읽고서였다. 그래서 심복의 <부생육기(浮生六記)>를 구해 읽었고, 읽고 나서는 임어당의 찬사가 결코 지나침이 없다고 공감했다.

<부생육기>는 요절한 아내 운이에 대한 사랑의 추억을 그린 심복의 자서전이며, 제목은 이백(李白)의 시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李園序)’의 한 구절인 ‘덧없는 인생은 꿈만 같으니 즐거움을 얼마나 누리리(浮生若夢 爲歡幾何)’에서 따온 것이다. 비록 시재(詩才)가 비상하게 빼어나지도, 속된 기준의 미인도 아니었지만 운이는 일상생활 주변의 하찮은 것 하나라도 무심하게 지나치거나 버리지 않고 사랑하며 가꿀 줄 안 슬기로운 여자였다. 그녀는 소소한 음식물에서부터 조촐한 뱃놀이나 축하잔치, 또는 시화(詩畫)에 이르기까지 남편의 충실한 반려가 되어 재치 있고 운치 있게 대화할 줄 알았고, 유량이나

회우들이 펴낸 신간

이재원 회우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재원 회우(자문위원회 간사·전 정무장관실 1차관)가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이야기를 잘 정리한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펴냈다.

건국이후 66년동안 (이중 5년7개월은 총리제 아님) 국무총리 42명, 총리서리 6명, 내각수반 4명등 모두 52명. 이중 총리를 2번 역임한 4명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48명인데 이들의 평균수명은 1년1개월이라고 했다. 총리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총리두번에 6년이상 최장수한 김종필씨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는 필자이다. 김종필총리는 후임인 박태준총리에게 “총리가 되면 고통이 많을것이다. 자주 참아야한다. 때로는 아는 것도 모른척, 모르는 것도 아는척 해야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묵묵히 대통령을 보좌해야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책임총리’와 어떤 연관이있을까? ‘국무총리 제도와 운영’ ‘국무총리의 생활’ ‘국무총리의 역할’ 등 3개 챕터에 17개 항목으로 일목요연하게 총리의 모든 것을 펼쳐놓았다.

이재원 회우는 1966년부터 언론계, 행정부, 그리고 정당의 정책부서에서 일하면서 25명의 국무총리와 직·간접으로 인연을 맺어왔고 그중 10명은 직접 보좌한 경험을 토대로 이책을 엮었다. 이책은 최근 연속된 국무총리 지명과 청문회, 자진사퇴문제가 국가의 기틀까지 흔들어놓은 시기에 간행된 총리 총서여서 주목을 끈다.

이회우는 2007년 8월 ‘한국의 국무총리 연구’라는 전문서적을 냈었는데 이번 출간된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중등학생 정도의 읽을거리 중심, 문고판으로 정리했다. (전통문화연구회 펴냄·책값 1만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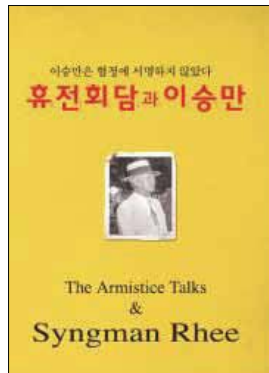
정일화 회우 ‘휴전회담과 이승만’

정일화 회우(기획조정위원회·전 한국일보논설위원·세종대겸임교수)가 월남이 휴전협정 2년만에 망한 것과는 달리 한국이 휴전 60년을 지나면서 안전과 번영을 지속해 한국전쟁을 ‘잊혀진 전쟁’에서 ‘잊혀진 승리’로 재평가하게 된 전쟁마무리 과정을 연구해 ‘휴전회담과 이승만’ (선한 약속출판)을 펴냈다.

6·25전쟁에 관한 세 번째 저서에서 정일화 회우는 인민군남침부대는 모택동의 8로군출신으로 전쟁경험과 소련제T34탱크를 가진 막강한 세력으로 38선에서 3시간만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었지만 3일이나 걸려 점령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첫 번째 위기에서 벗어났고 이어 위기때 마다 기적같은 일이 일어나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이런 사실들을 서울- 동경- 워싱턴의 자료들을 비교분석해 내용을 펼쳤다.

한국이 휴전 60년을 지나면서 안전과 번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휴전회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참전16개국의 재파병선언이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넣었기 때문이다. 안전장치는 맥아더의 돌연해임을 보고 이승만이 세밀히 계산한 휴전반대정치로 얻어진 것이었다고 저자는 분석했다.

이승만은 전쟁중 두 번에 걸친 미국의 제거음모를 당했으나 용하게 살아남았다. 중공군의 인해전술은 모택동군에게 항복한 장개석군의 소모전 형식으로 치러진 것이었으며 초기 인민군남침부대 역시 모택동의 공산정권 수립 후 김일성에게 넘겨준 한인출신 8로군으로 구성되어 무모한 공격작전에 투입된 사실도 중국자료를 인용해 소상히 밝히고 있다. (선한약속 간·값 2만5천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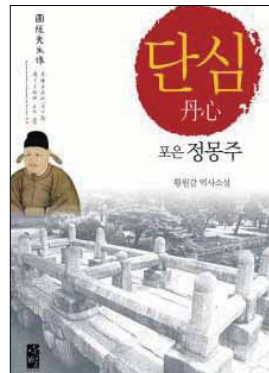


황원갑 회우 ‘단심-포은 정몽주’

중진 역사소설가 황원갑 회우가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일생을 그린 전기소설 ‘단심(丹心)’을 펴냈다. 이 역사소설은 포은 정몽주의 출생부터 선죽교에서 순국할 때까지 56년간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역동적인 필치로 그려냈다. 특히 이 전기소설집에는 정몽주의 일생을 소개하는 한편, 왕건(王建)의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 서희(徐熙)의 거란 격퇴, 강감찬(姜邯贊)의 귀주대첩, 윤관(尹瓘)의 여진정벌, 100년간의 무신시대, 삼별초(三別抄)의 대몽항쟁, 기황후(奇皇后)의 일생, 공민왕(恭愍王)의 개혁정치, 최영(崔瑩)의 일생, 최무선(崔茂宣)의 진포대첩, 이성계(李成桂)의 위화도회군과 조선 건국, 정도전(鄭道傳)의 일생 등 고려시대의 중요한 인물과 사건들을 재미있게 그리고 있다.

이 전기소설은 서장 정몽주와 이성계/제1장 소년시절/제2장 풍운의 고려조/제3장 사신을 넘어/제4장 일본행/제5장 조전원수/제6장 위화도회군/제7장 선죽교의 한 종장/ 불멸의 영혼으로 구성돼 있다.

황 회우는 1983년 신동아 복간기념 논픽션에 당선, 문단에 등단한 이후 소설집 ‘비인간시대’ ‘나를 여왕이라 부르라’ ‘연수영-불멸의 전설’ ‘불패-이순신의 전쟁’ ‘황혼의 분기점’, 역사교양서 ‘역사인물기행’ ‘민족사를 바꾼 무인들’ ‘한국사 제왕열전’ ‘한국사 여결열전’ ‘고승과 명찰’ ‘인물로 읽는 삼국유사’ ‘전쟁으로 읽는 한국사’ ‘21세기 손자병법’ 등의 저서가 있다. (도서출판 바움·값 1만5천원) [2]



지금까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분야를 ‘실버산업’으로 불러 왔지만, 소비력을 갖춘 고령층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실버’라는 단어가 ‘시니어’로 바뀌고 있다.

지난 6월 부산 벡스코에서 ‘2014 부산국제실버엑스포’가 열렸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직 ‘실버’라 칭했다. 여기서는 고령친화용품, 의료기기,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치매케어관, 홈케어 서비스, 시니어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고 체험서비스도 선보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시니어 산업 규모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14.2%씩 성장해 2020년에는 125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2011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1.1세(남성 77.3년, 여성 84.5년)로 OECD 평균(남성77.3, 여성82.8)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도 시니어 산업의 성장 배경 중 하나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나 홀로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시니어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노년층 대상의 의류 브랜드, 은퇴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상품, 노인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운동과 건강식품, 글자 크기를 키운 책, 글자판의 크기가 큰 휴대폰, 컴퓨터 등은 시니어 마케팅의 결과물이다. 통계청은 2020년엔 경제력을 지닌 50~64세의 시니어가 전체 고령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시장규모 역시 대폭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버산업의 사업들은 신체적 노화와 관련한 불편함만을 해소하는 소극적인

상품들이 대부분이었다. 지팡이나 보청기 같은 신체 보조기구나 실버타운, 요양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최근의 시니어 산업은 노인만을 위한 금융상품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시니어 제품 다양화

현재 유한킴벌리는 시니어 층을 겨냥한 용품을 생산, 200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력제품은 1회용 요실금팬티인 ‘디펜드 스타일’로 이 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20%를 넘고 있다. 쌍방울도 현재 기본 내의 외에 요실금 팬티, 보정 속옷, 세라믹 원단을 적용한 건강 내의, 환자용 내의 등 노년층이 선호하는 기능성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시니어 층의 욕구에 따라 시니어 전문 요양시설 및 헬스케어, IT 융합 의료기기 산업 등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육선, 실버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노후 일상생활에 편리한

편리한 시니어 用品



이보길

·본회 회원사업위원장
·전 KBS 해설위원

몇 가지 실버 용품을 소개한다.(요양용품, 병원용품은 제외)

-먼저 노인 특유의 냄새를 잡아주는 향수와 샴푸--‘천연 솔향’(9,000원)으로 만든 향수는 외출 시 휴대하고 다니면서 하루 1~2번 겨드랑이 등에 뿌려주고 샴푸용인 ‘시니어 클린바이오’는 매일 아침 샤워 시 비누대신에 쓴다. (사진1)

-다음 노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이다. 혹시라도 넘어지면 치명적이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나 양말을 신는 것이 중요하다. 눈길이나 빙판길, 빗길도 미끄럽다. 신발에 산악용 아이젠 대신에 도시형인 ‘미끄럼 안전슈즈’(18,800원)를 매자. 그리고 양말도 바닥에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 미끄러짐을 방지해준다. 손세탁이 가능하다.(3컬러 1세트 19,900원) (사진2)

-야외에 나가거나 외출할 때 요실금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많이 본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디펜드 스타일 팬티’(9개 1세트 8,900원)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여성용도 있고 사이즈 별로 있다. 흡수가 빠르고 건조도 빠르다. 노인을 위한 위생팬티로 적합하다. 용량은 50CC. 그리고 가볍고 초간편착용 혁대(12,000원)와 대형 손톱깎이(10,000원)는 발톱을 깎는데 아주 편리 하다. (사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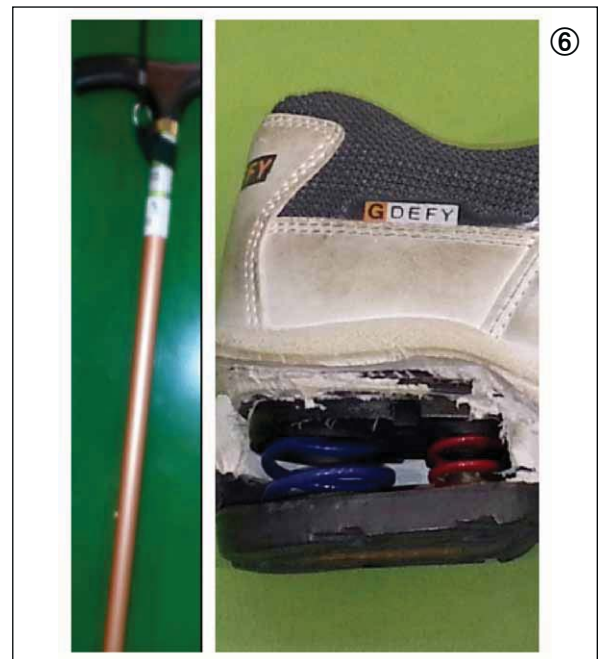
-눈이 침침해져 시계를 잘못보거나 신문이나 잡지를 읽을 때,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는 손목시계(28,000원)를 차거나 또 LED등이 달린 휴대용 팜공돈보기(19,000원)를 사용해보자.(사진4)

-틀니용 세척기와 살균제와 세정제를 소개한다. 세척기(90,000원)는 전기 용인데 틀니를 안전하게 세척할 수 있다. 살균제인 ‘폴리텐트’는 8,000원, 세정제인 ‘덴픽스’는 9,300원.(사진5)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 길이도 조절할 수 있고 3단으로 쏙 접힐 뿐만 아니라 지팡이 아래 쪽엔 고무가 달려 있어서 지형에 따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32,000원)

그리고 이 지팡이의 짝궁인 구두와 운동화(148,000~299,000원)엔 스프링이 있어 편안하다.(사진6)

파는곳: 종로3가 실버극장 4층 ‘골든프렌즈’, 육선, 실버카페. ☎



회우동정

가나다순

제1회 신아일보 자문위원 간담회



김명수(신아일보 발행인)회우= 지난 7월 22일 정오 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신아일보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짧고 강한 신문 만들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본회 박기정 이원창회우도 자문위원자격으로 참석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고문



곽찬호(일본鐵研신문사 한국주재기자)원로회우= 지난 6월 30일 11시 6·25참전유공자 서울지부 간부 86명에게 북·중관계 특강을 한데 이어 같은날(사) 북한민주화위원회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

대통령 표창 받아



신경식(육아방송 대표이사) 자문역=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육아방송이 출산장려와 바람직한 육아환경조성에 선도적으로 역할을 공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육아방송은 8월 중순경 최신 UHD(초고화질) 제작기술을 갖춘 스튜디오를 완공할 예정이다.

통일준비위원회 언론분야 자문위원



안병훈(전 조선일보 부사장)회우= 지난 7월 박근혜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일준비위원회의 언론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중국 인민일보(한국어판)에 칼럼전재
오동환(전 경향신문 논설위원)회우=

11년간 연재중인 경인일보 칼럼 ‘참성단’을 지난 7월 5일부터 중국 人民日報 한국어판(주간)에도 전재(중국관련 테마에 한해)되고 있다.

‘경편회’ 회장 선임



원종선(전 경향신문 편집위원)회우= 지난 7월 5일 낮 12시 경기도 고양시 현대산장에서 열린 2014년 경편회(경향신문 전 현직 편집기자 모임) 정기총회에서 제3대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원 40여명이 모인 이날 정기총회는 또한 김택근(전 경향신문 논설위원)회우를 경편회 총무로 선출했다. 회장임기는 2년이다.

소장도서 100권 기증



이홍기(전 KBS 파리총국장)회우= 소장하고 있던 경제 역사분야 도서 100권을 지난 6월 19일에 개관한 파주출판단지에 있는 아시아출판문화센터 내 열린도서관 ‘지혜의 숲’에 기증했다.

본회 방문 ‘대한언론’ 극찬



정재도(한글학회 명예이사)원로회우= ‘말과 글’ 여름호(제139호)에 ‘우리국어사전 얼마나 틀렸나’ 기고. 한편 지난 7월 24일 오후 90 고령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회를 방문, ‘대한언론’이 야말로 ‘앞날 밝힐 햇불’이라고 격려하는 한편, 요즘 자주 쓰이는 낱말 중 ‘人事’ ‘입장’ ‘구실’ ‘역할’ ‘반도’ 등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회보제작에 참고토록 했다. 또 대한언론인회의 발전에 관한 의견도 제시했다.

2014년도 회우수첩 배포

2014년도 회원수첩을 발행 우송하였습니다. 바뀐 도로명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느라 지연되었기로 양해 바랍니다.

〈회원수첩 정정해주세요〉

▲구월환 회우= 이메일 kwh2009@hanmail.net

▲권도호 회우= 우편번호 613-760, 휴대전화 010-2572-0993

▲김문진 부회장= 휴대전화 011-284-4436

▲박승구 회우= 휴대전화 010-8271-7974

▲송선무 회우= 경기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07, 701동 502호 (우 448-850)

▲손위수 회우= 생년월일 1945년 7월 24일로 정정

▲유무정 회우=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푸른마을로 402동 903호 (우 412-510)

▲이민희 회우= 이메일 leeminh1@naver.com

▲이원창 회우= 서울 강동구 고덕로 31, 암사동 강동롯데캐슬 118동 1102호 (우 134-015)

▲이향숙 회우= 서울 노원구 상계동 666번지 주공아파트 10단지 1020동 106호 (우139-210)

▲박강지 회우= 생년월일 1942년 3월 10일로 정정

▲장석영 회우= 서울 동작구 만양로 19, 705동 206호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집 전화 02-845-9487 〈약력〉 서울신문 기자, 사회부장, 논설위원, 판매본부장, 한국체대 초빙교수(행정학박사)

▲정용식 회우= 서울 은평구 통일로 586-19 JR아파트 105동 604호(우 122-774)

▲한동희 회우= 경기 용인 수지구 신봉1로 121, 101동 701호(신봉동, 수지신봉현대빌라트)(우 448-547)

▲황대연 회우= 서울 은평구 진관4로 48-17, 711-302 (은평뉴타운) 이메일 hwangdy@hanmail.net

*회원수첩 120쪽 제9장 후생복지기금 위원회규정 제 24조 2항 ‘의료비는 50만원 이상의 병원 치료비가 들었거나--’는 ‘100만원 이상의 병원치료비가 들었거나--’로 바로잡습니다. [㉠]

이명동 원로회우 95세에 첫 개인전

이명동 회우는 사진의 전설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전설을 보탬다. 인생 95세에 생애 첫 작품전을 연 것이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누구나 소망하지만 결코 이루기 어려운 인생의 9회말 대 역전홈런을 날렸다”며 놀라워했다. 한국사진계의 대 원로인 이명동 회우는 7월 5~31일 서울 방이동 한미사진미술관에서 ‘이명동 사진전-먼 역사의 또렷한 기억’을 열었다.

1942년 일본사진잡지 ‘아사히 카메라’에 두차례 입선하면서 사진가의 길에 들어선 이 회우는 6·25종군으로 세계의 무공훈장을 받았으며 옛 중앙일보를 거쳐 1955년 동아일보 사진부에 스카우트됐다.

그로부터 20년 넘게 동아일보에 몸담고 현장을 뛰면서 4·19 경무대앞에서 경찰의 총탄에 학생과 시민들이 쓰러지는 모습 등 숱한 역사적 장면들을 담아내 특종 보도했다. 1956년 5월 5일엔 호남선 열차에서 운명한 신익희 선생의 마지막 모습도 3시간 전에 찍었다. 1959년 조병옥 박사의 최후도 사진으로



이명동 회우(오른쪽)가 작품설명을 하고 있다.

기록했다.

이명동 회우는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기자였을 뿐 아니라 작가요, 평론가요, 예술가이며 기획자였다. 그는 평론가로서 한국사진계의 발전, 각성을 촉구하는 글을 썼고 각종 사진전시와 사진작가를 소개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를 떠난 뒤 여러 대학에서 ‘보도사진’을 강의하며 후학들을 길러냈다. 그리고 인생 70이 넘었을 때 사진잡지도 창간했다. 지금도 발행되는 ‘사진예술’이다.

이번 전시회에 나온 이명동 회우의 흑백사진들은 오랜 세월의 나래를 타고 보도사진에서 훌륭한 예술작품으로 승화돼 있다. [㉠]

지갑종 원로회우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아

지갑종(11.12대 국회의원·유엔한국참전국협회장) 원로회우가 지난 7월 27일 코엑스에서 거행된 정전협정 61주년 기념식장에서 1958년 이래 현재까지 56년간 UN 참전국과 긴밀한 유대증진을 통해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 1급을 수여받았다.

지갑종 원로회우는 6·25당시 ‘로이터’ 통신 종군 기자로 유엔 참전국을 순방하고 참전용사회를 각국별로 결성하였으며 국내에 ‘참전기념비’ 건립을 주도하고 참전용사의 방한을 유지하는 활동을 펴왔다. [㉠]



이혜복 전 본회회장 1주기 추모예배

대한언론인회 제 7-11대 회장을 역임한 故 소로 이혜복 선생의 1주기 추모예배가 8월 1일(금) 오전 11시 서울 명동 로얄 호텔 21층 뷔페홀에서 최경영 목사(영락교회)의 집례로 거행됐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본회 신유식, 제재형 고문과 김은구 회장, 이병대회우가 추모사를 했다.

고 이혜복 전 회장의 미망인 방봉세여사는 지난해 9월 고인의 유지라며 본회에 1천만의 찬조금을 보내온바 있다. [㉠]

본회 후생복지기금위원회 열려

대한언론인회 상반기 후생복지기금위원회(위원장 김의수)가 지난 7월 24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후생복지기금위원회는 상반기 중 신청된 의료지원비 심사와 함께 복지기금(10억) 관리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위원회 운영에 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팔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4년 6월 28일 부터 7월 29일까지)

김길홍(14)

김윤재(15)

서정혁(14)

유용현(14)

이석희(14,15)

전신병(14)

月刊 大韓言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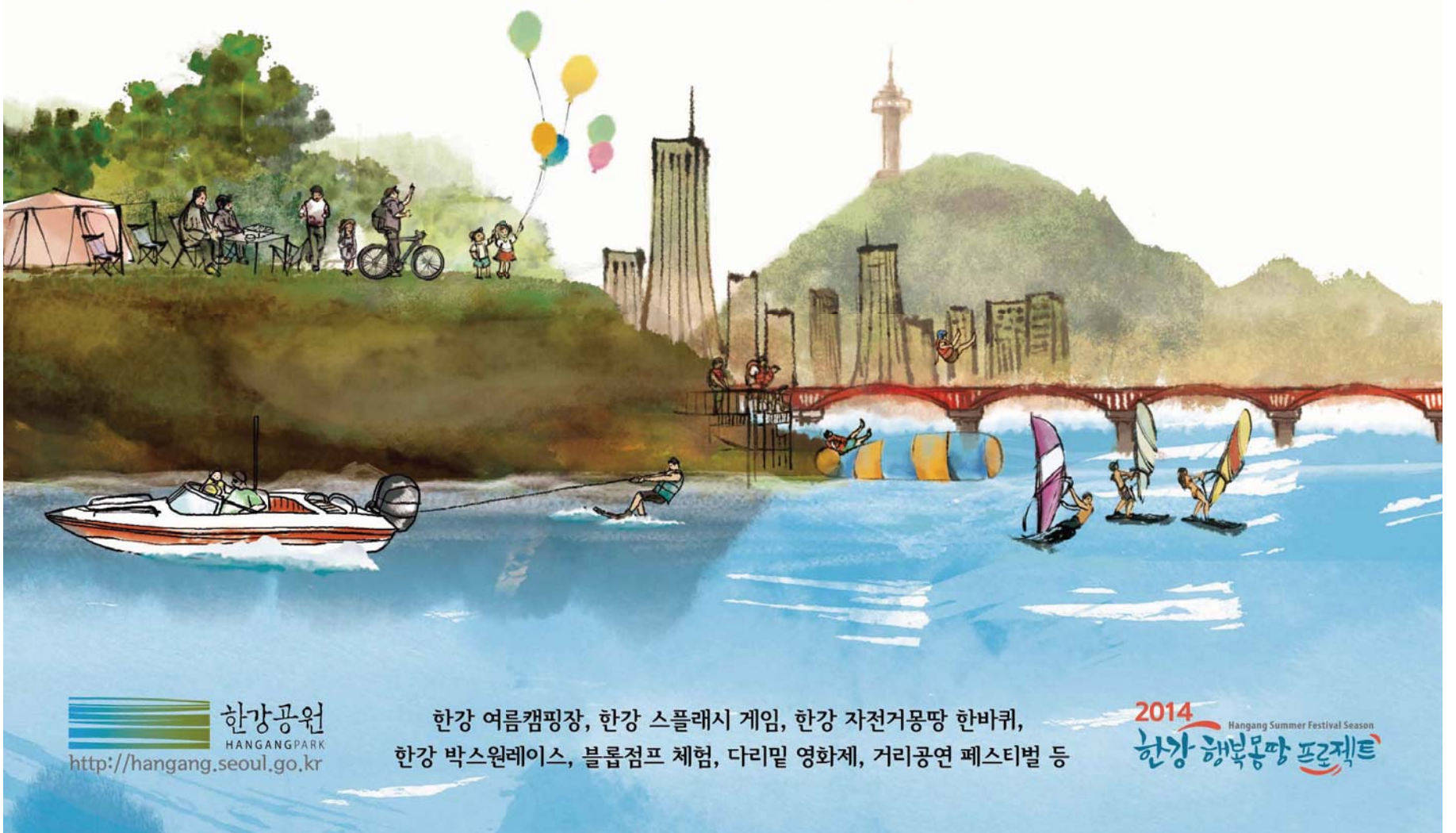
- | | |
|--|-----|
| · 발행인 겸 편집인 | 金銀九 |
| · 인쇄인 | 李榮一 |
|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 鄭雲宗 |
| · 주필 | 文明浩 |
| · 편집위원장 | 成樂五 |
| · 대외협력국장 | 黃貴根 |
|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 |
|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
| · E-mail : kjc1405@hanmail.net | |
|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 · ☎ 02)732-4797/4798 | |
| 02)2001-7621 | |
| · Fax. 02)730-1270 | |
|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 |

희망서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한강 몽땅

한강에서 꿈꾸고 강변에서 놀자
7.19(토) - 8.19(화)



한강공원
HANGANG PARK
<http://hangang.seoul.go.kr>

한강 여름캠핑장, 한강 스플래시 게임, 한강 자전거몽땅 한바퀴,
한강 박스원레이스, 블롭점프 체험, 다리밟 영화제, 거리공연 페스티벌 등

2014 Hangang Summer Festival Season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

기술유라 품질유라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2013년 8억불 수출의 탑 수상



-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 ■ 스마트 정션박스(Smart Junction Box)
- 차량통신시스템(Invehicle Network System) ■ 자동차 전장모듈(Electronic Module)
- 고전압 HEV 커넥터(High Voltage HEV Connector)

❖ 유라R&D센터(본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08 TEL 070)7878-1000 / FAX : 031)780-6801
www.yuracorp.co.kr

